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모색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13:3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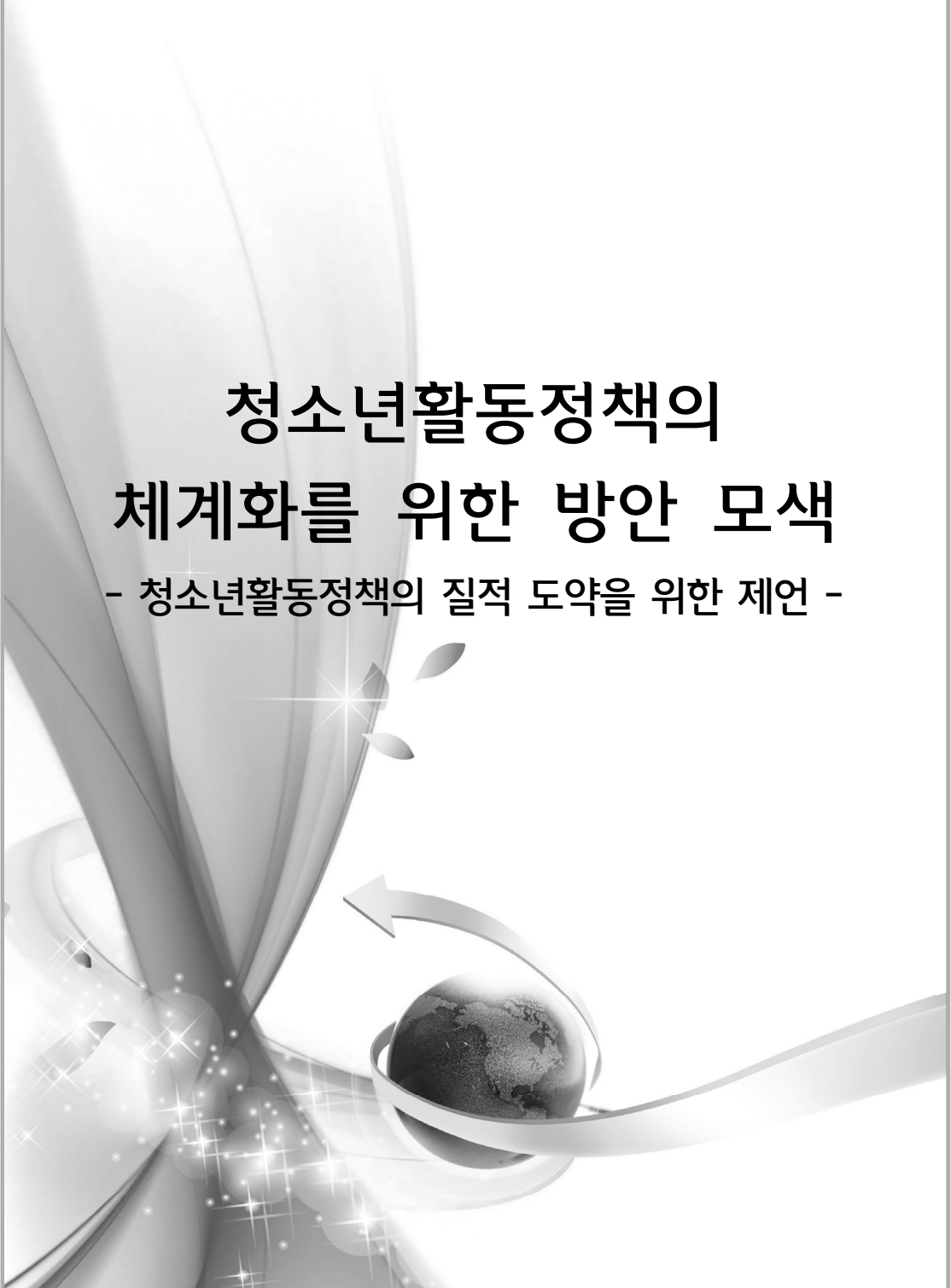
장 소 : 엘타워 라벤더홀(B1층)

공동주최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한국시민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
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학회 (가나다순)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 정

13:30~14:00	등 록	
14:00~14:10	사 회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10~14:20	내빈소개	
14:20~14:30	환 영 사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4:30~14:40	축 사	권용현(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14:40~14:50	좌 장	김영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4:50~15:00	주제발표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청소년활동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언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00~16:00	지정토론	전성민(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원장) 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김성훈(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이영수(쌍문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이지환(전국청소년수련원협의회 사무국장) 박진용(아산YMCA 사무총장)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 최순종(경기대학교 교수)
16:00~17:00	종합토론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청소년활동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언 -

1. 들어가는 말	5
2. 연구방법	8
3. 청소년활동개념의 재정립	9
1) 청소년활동개념의 재개념화	9
2) 청소년활동과 역량의 관계	12
3) 청소년 체험활동 효과와 청소년 활동개념	16
4)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20
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및 학부모 요구조사	21
1)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21
2) 학부모 요구조사	32
3)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38
5.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39
1) 청소년활동정책 자원 분석 및 평가의 개요	39
2) 주무부처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	40
3)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53
4) 종합적인 논의 및 시사점	56
6.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방안: 질적 도약을 위한 제언	57
1)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과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활성화 방안	58
2) 청소년활동정책 장기비전 및 목표 설정 필요	59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제고 방안	62
4)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의 재정비 방안	63
5) 청소년지도인력양성 시스템 개선	64
6)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통계체계의 수립	64
7) 청소년참여를 핵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65
8) 청소년 관련 학회의 통합과 연계	66
 7. 결론	 68
 참 고 문 헌	 70
 부 록	 89
표1.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문헌 분석자료	91
표2. 중앙부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표	98
그림1. 청소년활동정책 연표	109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청소년활동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언 -

김현철 ·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활동 서비스의 양도 증가했지만, 사적인 기회도 많아졌다. 창의적 체험활동가 초·중·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산·도입되었으며,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문화예술활동, 동아리활동, 진로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주말체험활동 등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꿈과 끼’를 모토로 한 자유학기제의 시행도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공공의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기관들과 다양한 민간단체나 영리기관에서도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많은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진로체험활동은 서울시교육청의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 1학기에 이미 진로탐색 집중학기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11개교), 2013년 2학기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의 4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진로교육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학교현장은 체험활동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은 더 강조될 것이며, 관련된 인프라들도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비하면 이른바 청소년활동정책의 변화는 더디거나 더욱 주변화되어

가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청소년육성법 제정 이래 20여년 동안 이른바 청소년활동분야의 시설, 인력, 기관 등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청소년육성의 이념 아래 추진되어 온 청소년정책은 특히 청소년활동정책을 강조해 왔고,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정책이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소년 인구 전체로 보자면 청소년활동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이광호, 2011).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변화를 담보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목소리이다. ‘청소년활동정책’이 전반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김현철, 2012). 정책의 사회적 영향력이 낮고,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다. 양적으로 열악한 탓이기도 하지만,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성공적이든 아니든, 변화의 가능성이 있든 없든,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체험활동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무드는 청소년활동정책의 바깥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의 과정과 현단계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인 추진방안의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중앙부처 수준에서 관련 정책들이 총괄·조정될면 바람직하지만, 청소년활동정책 뿐아니라 많은 사회정책들에 있어서 총괄·조정은 난제이다.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들은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아니라 심지어 부처 안에서도 부서별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괄·조정의 대상인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난해하다. ‘청소년활동정책’이라는 용어가 기타 부처의 관련 정책이나 사업 또는 법령 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정책 이외의 분야에서는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된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청소년활동정책은 관련된 모든 부처의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청소년활동정책은 역사적으로 여타의 정책, 즉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이외의 정책과는 차별화되어 추진되어 왔다. 이념적으로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을 ‘교(敎)’와 ‘육(育)’으로 분리하여 이해했기 때문이다(김영호, 2012; 조영승, 1998). 학교 밖 영역의 청소년정책을 ‘육(育)’의 범주에 두고, 학교교육과정과 차별화 왔다. 그렇지만, 학교 밖의 영역을 모두 포괄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정책은 정책의 보편성을 상실하였다(김현철·최창욱·오해섭·이춘화·김지연, 2010). 수요자의 요구에 입각해서 보면, 청소년활동정책은 기존의 정책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관련부처들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정책은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후 관계부처합동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관계부처합동, 2010; 관계부처합동, 2012).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모든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선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정책의 총괄·조정을 표방해 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김현철 외, 2010; 윤철경, 박병식, 김진호, 강현주, 2012). 청소년활동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편적인 청소년활동정책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간의 청소년활동정책이 추진해온 사업들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은 크게 부족하였다. 단위 사업의 목표는 있지만, 사업의 총체적 성과, 즉 청소년활동정책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다(김현철, 2012).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후부터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를 역량개발에 두고 있지만,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활동개념의 모호성은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를 세우는 데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육성개념을 기반으로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청소년사업(youth work)과 청소년역량 개념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이광호, 2011; 김영호, 2012). 따라서 청소년활동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개념들, 특히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개념들로 보편적인 정책으로서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청소년활동 개념에 대한 논쟁도 제한된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청소년활동개념을 재정립과 아울러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evidence-based)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해 오기는 했지만,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금까지 실시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들은 청소년들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청소년활동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오지도 못했다. 조사의 한계는 일정 부분 청소년활동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데서 온 것이기도 하다. 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간에는 청소년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어도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먼저 문헌분석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하였으며, 그 다음 청소년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의 체험활동의 참여실태와 요구 그리고 자녀의 체험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정책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요구와 평가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활동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청소년활동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청소년활동개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육성,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사업, 청소년역량 등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되어 온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분석을 통해서 개념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청소년활동개념과 청소년사업 또는 청소년육성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구미국가와 일본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활동개념과 청소년역량개념 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의 체험활동과 문화활동 참여실태와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자녀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 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는 향후 반복횡단조사를 위한 설문지개발을 목표로 한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나 청소년가치관 조사(여성가족부) 등의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 체험활동에 특화된 반복횡단 조사 자료는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규모의 초·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를 조사하여 체험활동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조사 표본은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4,500명을 목표로 추출하였다. 학부모 대상 FGI를 통해서 자녀의 체험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서울지역의 강남과 강북의 학부모, 중도소시(청주시)의 학부모와 군지역(증평군)의 학부모 총 41명을 전업주부와 직장인의 비율을 50:50으로 선정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활동정책의 자원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다룬 문헌들을 분석하고,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자원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19개 중앙행정기관의 2013년도 예산설명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16개 시도의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자원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16명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3. 청소년활동개념의 재정립

1) 청소년활동개념의 재개념화

청소년활동이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말이며, 특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말이다. ‘청소년활동’이라는 특수한 개념이다.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첫째,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특수성이다. 청소년활동개념은 학문적인 토대를 갖춘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개념으로 출발했다(김민, 2010; 전명기, 2010). 더욱이 모든 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닌 특수한 개념이다.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과 같이 교육정책에서 ‘활동’이라는 개념들이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통칭해서 ‘청소년활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특히 ‘청소년활동정책’이라는 용어는 다른 정책 영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최근 교육정책에서는 ‘체험활동’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며, 일상적으로는 ‘청소년활동’ 개념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정책은 역사적으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이외의 정책, 특히 교육정책과 차별화되어 왔다. 이념적으로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을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敎)’와 학교 밖 청소년활동, 특히 청소년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한 ‘육(育)’으로 분리하여 이해되어 왔다(김영호, 2012; 조영승, 1998). 이러한 배경 때문에 청소년활동정책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정책과 거리를 두어왔다. 비판적으로 보면, 차별화가 보편성 상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김현철 외, 2010).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청소년활동개념이

이와 같은 법률용어를 차용하거나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청소년활동개념이 학문적으로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김민, 2010; 전명기, 2010).

둘째, 청소년활동개념은 한국의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정책적인 개념으로 외국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비해서도 특수한 개념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대체로 청소년활동(youth work)보다는 청소년사업(youth work)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영국에서도 ‘Youth Activity’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학교교육과 구별 짓는 차원에서 ‘Youth Work’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박선영, 2013). 독일에서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청소년사업(Jugendarbeit; youth work)’ 개념이 사용되며(이민희, 2013), 핀란드에서도 ‘youth work’을 의미하는 ‘nuorisotyö’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민전순, 2013). 프랑스어에서 ‘청소년활동’에 해당하는 개념은 ‘animation socioculturelle’로 직역하면 ‘사회문화적 활력충전(혹은 생기충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문화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지 않고 ‘animation(활력충전)’이라는 용어도 종종 사용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인 ‘청소년사업’의 개념과 유사하다(신선미, 2013).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青少年活動)’이란 개념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체험활동’ 개념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정책적인 용어로서도 ‘체험활동’ 개념이 더 많이 사용된다. 청소년육성(青少年育成) 개념도 사용되지만, 청소년육성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사업’과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육성’ 개념과 흡사하고, 인지적인 영역의 발달보다는 정의적 영역이나 인성에 강조점을 둔다. 유럽의 경우 ‘청소년사업(youth work)’ 개념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통합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일본의 청소년육성 개념 또한 마찬가지이다. 즉,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청소년복지와 엄밀히 구분하기보다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에는 ‘청소년활동’ 개념을 ‘청소년사업’ 개념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광호, 2011; 전명기, 2010). ‘청소년사업’은 내용적으로는 ‘청소년육성’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에 비해 청소년활동 개념은 협의의 개념이다. 달리 말하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의 하위개념이거나 또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의 하위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하위영역인 청소년보호나 복지 또는 교육 등의 영역과 독립적인 개념이 아닌 도구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정책은 학교 밖의 정책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취약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과 배타적이지도 않아야 한다. 반면, ‘청소년활동’ 개념은 주로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등치되어 왔으며(김민, 2010),

그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개념의 외연이 너무 넓게 이해되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의 개념정의는 이러한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청소년수련활동’ 개념의 외연은 넓어진 반면,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축소되었다. 한 마디로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은 축소되어야 하며,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확장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한계가 청소년활동개념이 특수성을 띠게 된 중요한 배경이기는 하지만, 청소년활동, 즉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경험은 교육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멀게는 17세기 교육개혁가 요하네스 코메니우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장자크 루소도 빼놓을 수 없다. 이후 ‘체험(Erlebnis)’을 어떤 대상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내적으로 깊이 그리고 총체적으로 파악한 상태로 지칭한 빌헬름 딜타이(김창환, 2010, p.75), 노작교육을 강조한 쥐리히 페스탈로치, 계속성이 담보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경험을 강조한 존 듀이(정운경, 2010, p. 90) 등 많은 교육학자들이 경험을 중요한 주제로 삼아왔다. 심리학에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 상황중심 학습, 몰입 등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체험이나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김종백, 2010; Csikszentmihalyi, 1999). 호이칭아(Huizinga, 1938)는 「호모 루덴스」를 통해서, 카요와(Caillois, 1958)는 「놀이와 인간」을 통해서 체험에서의 놀이적 요소나 문화적 요소들이 강조되었다. 정신분석학적인 계통에서 「놀이」가 치료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도 체험의 중요성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주는 예이다(Crenshaw & Mordock, 2005). 청소년활동이 특히 청소년의 비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도 많다(예, Crean, 2012). 최근에는 스포츠 분야나 뇌신경학 분야에서도 신체활동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와 관련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권순용, 2010; 노규식, 2010). 이러한 일련의 학문적 성과들은 체험활동이 단순히 정의적 또는 정서적인 영역에서만 아니라 인지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신체발달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들을 보여준다. 로버트 루트번스타인(Root-Bernstein, 1999)은 『생각의 탄생』에서 다양한 체험 또는 경험이 지적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결국 청소년활동개념이 특수한 개념에서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학교교육에서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청소년활동개념을 학교교육과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실천적으로도 한계가 명백해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활동개념은 다른 어떤 개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청소년활동개념, 특히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이라는 특수한 개념의 틀에서 이해하거나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2) 청소년활동과 역량 관계

OECD가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개념을 강조한 이래(OECD, 2005), 국내에서도 역량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제 청소년정책에서 ‘역량’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량개념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부터 청소년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되었으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도 정책목표로 제시되어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관계부처합동, 2012). 그러나 역량개념은 학문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아직 논쟁적인 개념이다.

역량개념을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개념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청소년 역량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역량지표 중에서 가장 적절한 지표를 정책적으로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할지의 문제는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역량지표들을 비교함으로써 역량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개념으로서의 역량개념이 포괄해야 하는 하위영역의 범주를 새롭게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의 역량지표들을 종합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역량개념과 청소년활동 개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역량개념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와 박현준(2010)은 DeSeCo 프로젝트의 핵심역량 개념(지적 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에 ‘사고력’의 범주를 추가하여 생애핵심역량지표를 개발하였다. 윤명희와 김진화(2008)는 청소년의 생활 세계에 초점을 맞춰 생활역량지표를 개발하였고, 주인중 등(2010)은 직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적인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진단도구인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K-CESA)를 개발하였으며, 이광우 등(2010)은 교육과정 설계를 목적으로 핵심역량요인들 개발하였다. 권일남, 이창식과 김태균(2011)이 개발한 청소년역량지표는 청소년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성렬(2012)은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지표들을 “현재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 ‘생활역량’과 미래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미래역량’으로 구분하였다”(유성렬, 2012, p.36).

각각의 역량지표들을 비교해 보면, 많은 영역이 중첩되기도 하지만, 다른 지표들과 차별적인 하위영역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역량지표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OECD의 지표와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김기현 등(2010)의 지표영역을 기초해서 각각의 역량지표

들의 하위요인을 배치시키고, 이 두 역량지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지표영역들은 별개의 지표영역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하위요인들을 배치시켰다(표 1).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OECD의 핵심역량지표 영역인 ‘지적 도구활용능력’,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에 김기현 등(2010)의 역량지표는 사고력을 추가했고, 다른 지표들로부터 ‘창의력’과 ‘심층역량’, ‘신체적 역량’이 추가되었다. ‘창의력’은 기본적으로 측정의 난점이 있고, ‘사고력’은 창의력에 비해 측정의 난점은 덜 하지만, 주관적 지표가 아닌 측정이 필요한 문항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은 다른 역량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측정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지만, 역량지표가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인 역량’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하위요인 이지만, 전통적인 전인적 발달지표인 ‘지덕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의적 특성은 동기나 자아개념 뿐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역량과 자율적 역량까지 포괄하지만, OECD 지표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역량과 자율적 역량을 독립적인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나 자아개념과 같은 정의적인 특성들은 역량을 크게 표면역량과 심층역량으로 분류하고, 그 중 ‘자아개념’, ‘특질’, ‘동기’ 요인을 ‘심층역량’으로 본 소경희(2007)의 분류에 따라 ‘심층역량’을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표 1>의 분류를 다시 학습영역의 분류체계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룸의 분류체계에 따라 재배치하였다(표 2). 여기서는 블룸이 최초에 제시한 분류체계(Bloom, 1956)를 앤더슨과 크래쓰홀(Anderson & Krathwohl, 2001)이 재구성한 신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역량지표들은 블룸의 분류체계 안에서 모두 재배치되었다(표 2). 즉,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심체적인 영역으로 재분류되었다.

인지적인 영역은 기억에서 창의까지 위계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위계적 배열에 맞춰 역량지표들도 위계적으로 재배치하였다. 하지만 정의적 영역과 심체적 영역은 위계적인 배열은 아니다. 인지적 영역에는 DeSeCo(OECD, 2005)의 지적 도구활용능력과 김기현 등(2010)이 제시한 핵심역량지표 중 사고력과 이광우 등(2010)이 제시한 역량지표 중 창의력을 대응시켰다.

표 1 역량개념 하위요인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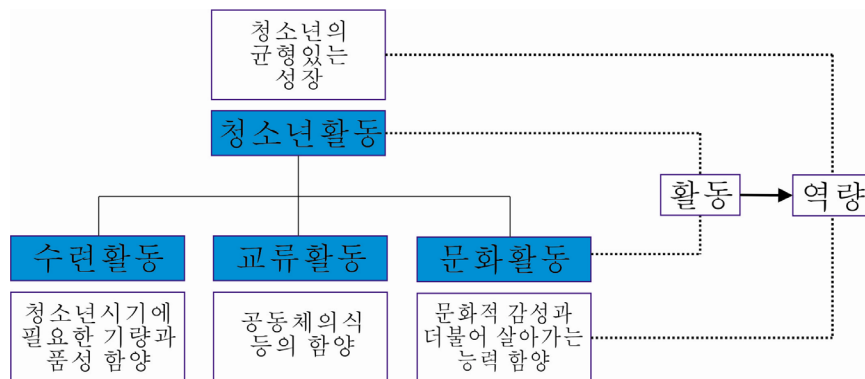
역량의 분류체계	OECD(2005)	김기현 외(2010)	윤명화· 김진화 (2008)	주인중 외(2010)	이광우 외(2010)	관일남 외(2011)	유성렬 (2012)	소경희(2007)
지적 도구활용능력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기술을 상호적으로 활용하기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문제해결	글로벌 역량 자원정보기술의 활용 의사소통 (인지적 요소)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초학습능력	문제해결역량 리더십역량	의사소통(생활역량) 지식정보기술활용 (미래역량)	기술(표면역량) 지식(표면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협동,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협동 갈등관리	문제해결 공동체	대인관계 및 협력 (비인지적 요소)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이해	문제해결역량 갈등조절역량 대인관계역량 시민성역량	대인관계(생활역량) 시민성(생활역량)	-
자율적 역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행동하기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상황대처	자기관리 (비인지적 요소)	-	-	자율성(생활역량)	-
사고력	-	비판적 사고기술 비판적 사고경향	-	종합적 사고력 (인지적 요소)	-	-	종합적 사고력 (미래역량)	-
창의력	-	-	-	-	창의력	-	-	-
신체적 역량	-	-	-	자기관리 (비인지적 요소)	-	신체건강역량	-	-
심층역량	-	-	자기성장 자기조절	-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능력	자아역량 성취동기역량	자기관리(생활역량) 진로개발(미래역량)	자아개념(심층역량) 특질(심층역량) 동기(심층역량)

정의적 영역에는 DeSeCo(OECD, 2005)의 사회적 상호작용역량과 자율적 역량 그리고 흔히 정의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동기’, ‘자아정체성’ 등의 심층역량(소경희, 2007)을 대응시켰고, 심체적 영역에는 권일남 등(2011)이 제시한 역량지표 중 신체적 역량을 대응시켰다. 블룸의 분류체계에 모두 대응되는 역량지표체계는 없지만, <표 2>의 각 역량지표의 하위요인들을 종합하여 배치시키면 블룸의 세 가지 분류체계에 대응된다. 블룸의 세 가지 분류체계에 대응되는 것은 지적인 성취와 창의성, 시민의식과 인성 그리고 신체적 건강함을 고루 갖추게 할 수 있는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 2 블룸의 학습영역 분류체계와 역량의 분류체계 비교

블룸의 학습영역 분류체계		역량의 분류체계	
인지적 영역	기억(지식)	지적도구 활용능력	기초학습능력
	이해		정보처리 및 활용능력
	적용		글로벌, 다문화 이해 상호작용능력
	분석	사고력	추론적, 분석적 사고
	평가		평가적, 비판적 사고
	창의	창의력	창의력
정의적 영역	현상의 수용	심층역량	동기, 자아정체성
	현상에 대한 반응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대인관계, 타인이해, 문제해결력
	가치부여		협동, 시민의식
	조직		리더십, 자신감
	가치의 내면화	자율적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로인식
심체적 영역	-	신체적 역량	건강한 신체
			신체 및 건강 관리능력, 운동능력

〈표 2〉와 같이 역량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때, 청소년활동은 역량개념과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을까? 청소년역량개념은 청소년활동개념과 동일한 수준에서 논의되기도 하지만, 청소년역량은 청소년활동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성렬(2012)은 〈그림 1〉과 같이 청소년활동과 되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역량의 함양이 청소년활동의 기본 목표가 되는 관계설정이 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설정은 청소년활동의 내용이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활동개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적어도 인지적인 영역의 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활동의 범주를 〈표 2〉에 준하여 설정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게 활동과 역량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유성렬(2012). p.38

【그림 1】 청소년역량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1)

3) 청소년 체험활동 효과와 청소년 활동개념

최근 창의성과 인성이 강조되면서 그 수단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체험활동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개념이 혼돈스럽고, 측정상 난점도 많기 때문이다(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김현철 외,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정책의 확산을 위해서 중요하다.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학력경쟁체제 속에서 체험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반감될 우려도 있다. 아일랜드도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를 시행하면서 전환학년제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김현철, 2013b). 일본에서도 「유토리교육」 실시 이후 끊임없이 학력저하논쟁(市川, 2002)과 학력의 계층간 격차(荻谷, 2001)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체험활동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만큼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청소년 체험활동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4배에 달한다는 성은모 등(2012)의 연구는 체험활동이 개인의 발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문헌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단, 정량적인 메타분석이 아닌 정성적인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여 편의 관련문헌을 수집하여 최종적으로는 145여건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각 문헌의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그리고 주요결과(체험활동의 효과)에 정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주요결과 중 긍정적인 효과는 ‘(+)’ 로, 부적인 효과는 ‘(-)’ 로 표기하였다. 논문에 따라 투입요인인 체험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예를 들어, 수련활동 개념은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특정 스포츠활동이나 야외캠프 활동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따라서 투입요인과 결과를 정확히 매칭시키는 데 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의 영역을 분류하여 각각의 체험활동이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체험활동의 영역을 크게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으로 나누었다. 교과활동영역의 체험활동은 교과연계형 체험활동을 의미한다. 비교과 활동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에 따라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에 문화활동을 추가하였고, 수련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복합적으로 투입된 통합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해서 분류된 12개 영역의 체험활동이 <부록 표 1>에서 역량的大분류 영역인 ‘지적도구활용능력’, ‘사고력’, ‘창의력’, ‘심층역량’, ‘사회적 사회작용역량’, ‘자율적 역량’, ‘신체적 역량’ 의 어느 영역에 속하는 효과를 보였는지를 <표 3>으로 나타내었다. <표 3>은 각 영역의 체험활동이 어떤 역량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외재변수들인데, 이들 외재변수들은 체험활동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변인들이다.

표 3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메타분석 결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체적 영역		외재변수
	지적도구활용능력	사고력	창의력	심층여량	사회적 상호작용여량	자율적여량	신체적여량		
교과활동	●				●	●			
건강·보건활동				●	●	●	●	●	성별/학교급/학년/참여빈도/시간/기간/강도/수준/참여종목/형태/참여방식/참여동기/자아존중감
과학정보활동	●	●			●	●			
교류활동					●				
모험개척활동				●	●	●	●	●	참여방식/참여기간(+)/참여강도(+)/연령(-)/프로그램목적
직업체험활동				●	●	●			부모애착
환경보존활동				●	●				
자기(인성)개발활동	●			●	●				프로그램 특성
봉사활동				●	●	●			봉사영역/봉사경력/봉사방식/활동빈도/기간/시간/봉사만족도
사회참여활동				●	●				참여수준/형태/과정/양
문화활동		●		●	●	●	●	●	참여기간/빈도/강도/정도/시간/참여유형/활동만족도/문화활동지출비용
통합활동				●	●	●			활동수준/참여빈도

결국 <표3>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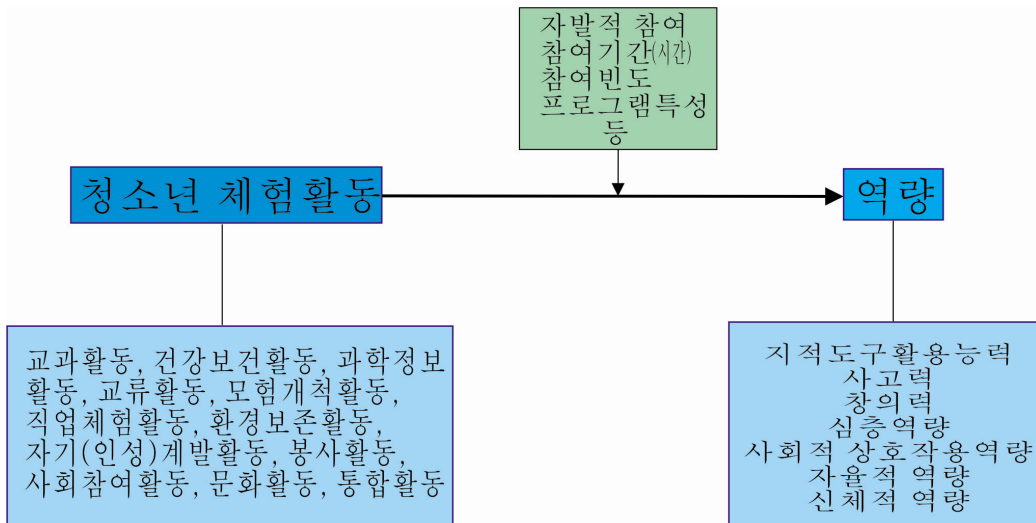
첫째, 교과활동 프로그램은 지적도구활용능력,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건활동은 심층역량과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 및 신체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학정보활동은 지적도구활용능력과 사고력,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역량과 자율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류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험개척활동은 심층역량과,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 그리고 신체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업체험활동은 심층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보존활동은 심층역량과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인성)계발활동은 지적도구활용능력과 심층역량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봉사활동은 심층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참여활동은 심층역량과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문화활동은 창의력, 심층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 그리고 신체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끝으로 통합활동은 심층역량,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자율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분석대상 연구들 중 여러 연구들은 또한 체험활동의 효과의 정도가 외재변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발적인 참여일수록 또는 참여의 기간 또는 시간이 길거나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체험활동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프로그램의 특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서도 효과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포괄적으로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서, 즉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그리고 심체적 영역의 역량을 고루 계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 단순히 많은 체험활동이 아닌 보다 체험활동 참여의 질적인 수준이 중요하다는 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물론 분석결과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각 활동영역의 효과가 반드시 <표 3>의 결과대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이나 연구대상, 투입요인에 따라서도 연구설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또한 활동영역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역량계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체험활동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체험활동의 경험과 역량 간의 경로는 여전히 복잡성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김현철 등(2012)이 말한 ‘보이지 않는 경로(invisible path)’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그림 1>을 다시 그리면 <그림 2>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림 2】 청소년역량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2)

4)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 청소년활동개념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육성 개념과 혼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청소년사업개념이나 청소년 역량개념과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개념의 문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문적 논쟁과 청소년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해 보았다.

첫째, 청소년활동개념은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개념 틀 안에서 학교교육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사용되어 왔지만, 수련활동개념의 외연이 너무 넓어 학문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혼란의 여지를 남겨 왔다. 반면 청소년활동개념은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을 틀 안에서 너무 좁게 해석해 왔다.

둘째, 청소년활동개념은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개념의 하위 개념이거나 또는 방법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구미국가들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사업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하고, 일본이 청소년육성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

의 개념은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이것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정책 내에서 보다 폭넓게 쓰여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활동, 보호, 복지라는 차별적 영역화보다는 활동은 하나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다만,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이유는 구미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지나친 학력경쟁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청소년들에게 각자의 소질에 따른 역량을 계발시켜야 한다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체험활동이라는 사업 자체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역량개념은 청소년활동개념과는 병렬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청소년활동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역량개념 또한 포괄적인 또는 전인적인 발달을 고려하여 ‘지덕체’ 또는 ‘인지, 정의, 신체’ 영역의 고른 발달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역량개념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통합적인 틀 안에서 청소년활동사업을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체험활동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로부터 체험활동의 양만이 문제가 아니라 체험활동이 질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및 학부모 요구조사

1)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활동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도와 참여방식, 체험활동의 장애요인 및 요구,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¹⁾에 재학 중인 학생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집락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150개 학교에서 4,519명이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예비조사 실시(2013. 4. 15.)결과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기에는 문항난이도가 높아 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의 응답거부율이 높고, 1학년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이 5월이어서 중학교에서의 체험활동 경험이 1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2학년을 선정하는 등 학교급별로 대표학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되었고, 남학생이 52.4%, 여학생이 47.6%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이 32.3%, 중학생이 33.0%,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28.8%,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6.0%이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43.5%, 중소도시 41.2%, 읍·면지역이 15.3%였다.

설문조사문항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a)의 청소년활동 관련 조사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그간에 이루어진 청소년 체험활동 조사 문항을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설문문항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사영역별 설문문항의 구성

영역	내용	출처
체험활동 참여변인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도 · 건강·보건활동 · 과학정보활동 · 교류활동 · 모험·개척활동 · 직업체험활동 · 환경보존활동 · 자기(인성)개발활동 · 봉사활동 · 사회참여활동 · 대중문화활동 · 팬덤문화활동 · 고급문화활동	· 여성가족부(2011)의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방식 · 위 12개 영역의 활동에 대해 복수응답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누리/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 연구진 작성
	체험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 참여하고 싶은 활동 중 참여하지 못한 활동 유무 · 참여하지 못한 이유(1, 2, 3순위로 응답) · 체험활동 적극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1, 2, 3순위로 응답)	· 임지연 외(2009) 수정·보완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체험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정도(12개 시설 각각에 대한 이용경험)	· 여성가족부(2012a)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영역	내용	출처
정의적 특성변인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15개 문항)	· 김현철 외(2012)
	자아존중감(10개 문항)	· Rogenberg(1965)
	동기 · 외재적 동기(6개 문항) · 내재적 동기(6개 문항) · 무동기(6개 문항)	· 김아영(2008)
	몰입 · 목표지향성(16개 문항) · 자의식의 상실(16개 문항)	· 이창호, 주영아, 권해수, 안현의(2002)
	행복감 · 주관적 행복(6개 문항) · 행복도(1개 문항)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
기타	학습활동참여(6개 문항)	· 연구진 작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최근 1년간 각 체험활동 영역별로 ‘얼마나 참여했는지(참여도)’와 ‘어떻게 참여했는지(참여방식)’를 질문한 점이다. 이것은 참여의 폭과 참여의 깊이(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조사들이 대체로 체험활동 참여도를 별도로 묻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참여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물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체험활동의 ‘참여의 폭(breadth)’과 ‘참여의 강도(intensity)’ 그리고 ‘참여의 방식(specificity)’과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Crean(2012)은 세 가지 변수가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 특히 정의적 영역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밝혔다.

(2) 조사결과

가.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율 및 참여의 폭

최근 1년간의 참여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영역은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건강·보건활동이었다. 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은 이 세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참여활동은 전체 청소년의 16.1%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 참여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직업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의 경우는 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과학정보활동에는 남학생이, 건강·보건활동, 교류활동, 직업체험활동, 자기개발활동,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문화활동에는 여학생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중문화, 팬덤문화, 고급문화활동에서 성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체험활동의 폭(breath)은 12개 각 참여활동 영역에 대해 최근 1년간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하였으며, 변수값의 범위는 0~12이다. 즉, 최근 1년간 어떠한 체험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0점, 12개 영역 모두에 참여한 경우는 12점이다.

체험활동의 폭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년간 평균 6개 영역의 체험활동을 중·고등학생은 5개 영역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체험활동 폭이 넓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체험활동의 폭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체험활동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도 및 참여의 강도

각 영역별 체험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각 체험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질문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면 1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면 2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하였다. 체험활동 참여도는 팬덤문화활동에서 1.88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참여활동에서 1.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차는 모험·개척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직업체험활동과 문화활동(대중문화, 팬덤문화, 고급문화)에서는 두드러졌다. 대중문화활동과 팬덤문화활동의 참여율은 각각 33.2%와 28.0%로 낮은 편이지만, 이 두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참여도는 높은 편이었다. 이는 이들 활동에 대한 참여가 대부분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험활동의 강도(intensity)는 최근 1년간 1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12개 각 체험활동에 대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점, 소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1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2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3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계를 낸 후, 이를 체험활동의 폭(breath)으로 나눈 값으로 변수값의 범위는 1~3이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의 강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중고생보다, 대도시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보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별, 경제적 수준별 차이는 체험활동의 강도보다는 체험활동의 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체험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 체험활동 참여방식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각 체험활동 영역에 대해 어떻게 참여했는지의 참여방식을,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 ③ 교외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④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누리/한별단 등), ⑤ 온라인동아리활동, ⑥ 종교활동(선교활동 등), ⑦ 개인적으로 활동(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학원에서 하는 활동 포함)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복수응답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에서는 교내동아리활동, 교외동아리활동, 온라인동아리활동을 동아리활동으로 통합하여 ‘학교단체참여’, ‘개인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종교활동’ 별 비율을 산출하였다. 청소년들은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교에서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 대중문화활동, 팬덤문화활동, 고급문화활동은, 단체활동보다는 가족과 함께 또는 학원에서 하는 활동을 포함한 개인활동이 주를 이뤘다. 동아리활동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은 과학정보활동, 대중문화활동과 팬덤문화활동이었다.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방식별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2개 영역의 활동에 대해 참여방식별 참여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웃,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아람/누리/한별단 등) 방식으로 참여할 때의 참여도가 대부분의 활동영역에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지도자의 역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정보활동과 대중문화활동은 동아리활동 참여방식에서 참여도가 높았으며, 환경보존활동과 고급문화활동은 종교활동 참여방식에서 참여도가 높았다. 반면에 모든 활동에서 학교에서 학년 또는 학급 단위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참여방식이 비자발적인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라. 체험활동 시설 이용정도

최근 1년간 체험활동 관련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체험활동 관련시설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은 도서관(90.8%)이었고, 다음으로는 만화방, 노래방, PC방, 게임방(86.3%), 테마파크, 놀이동산, 공원,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86.2%)의 순이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의 이용률은 64.0%였다.

각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설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1년에 1~2번의 빈도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사회복지관과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다.

다음으로 체험활동 시설이용의 폭을 알아보았다. 체험활동 관련시설 중 만화방, 노래방, PC방, 게임방을 제외한 11개종의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각각 1점을 부여하고 총점을 산출하였다. 이용한 시설이 없으면 0점, 최근 1년간 11개종의 시설 모두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면 11점으로 변수값의 범위는 0~11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경제적 수준은 높은 가정에 속한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체험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최근 1년간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체험활동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초등학생의 39.0%, 중학생의 40.5%,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58.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48.8%로,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에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희망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1, 2, 3순위로 응답하게 하고, 1순위 응답에는 300%, 2순위 응답에는 200%, 3순위 응답에는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것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였고, 두 번째 이유는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유는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였다. 즉 대부분 참여할 시간이 없거나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1, 2순위로 꼽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초등학생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체험활동 장애요인 2순위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의 반대’ 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를 2순위로 응답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라고 응답하여, 예산지원 등으로 격차해소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장애요인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1순위 응답에는 300%, 2순위 응답에는 200%, 1순위 응답에는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이라고 응답하여 학교에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는 ‘체험활동 참가비용 지원’ 이 2순위,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이 3순위였고, ‘체험활동에 참여한 기록을 학교 성적에 반영’ 하거나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상을 주는 제도’ 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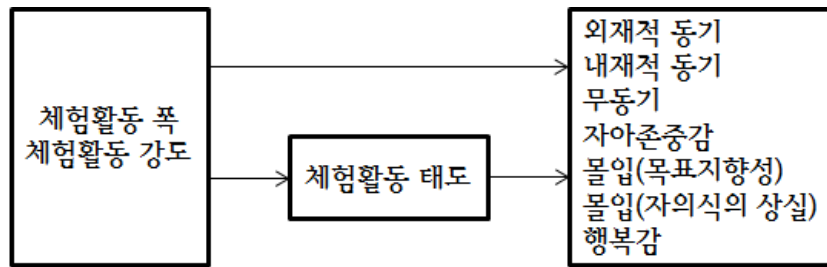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15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분석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에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에 2점, ‘그런 편이다’ 에 3점, ‘매우 그렇다’ 에 4점을 부여하여 평균을 산출하였고, 긍정적 태도 종합은 15개 응답값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초등학생에서 가장 높고 고급이 올라감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였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성차가 거의 없었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선생님, 친구들과 친해지고 학교생활이 즐겁다는 긍정적 인식은 남학생에서 더 높았다.

사. 체험활동 참여와 정의적 특성의 관계

체험활동의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 변화의 분석을 위하여 경로분석모형(path analysis models)을 이용하였다. 경로분석은 셋 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분석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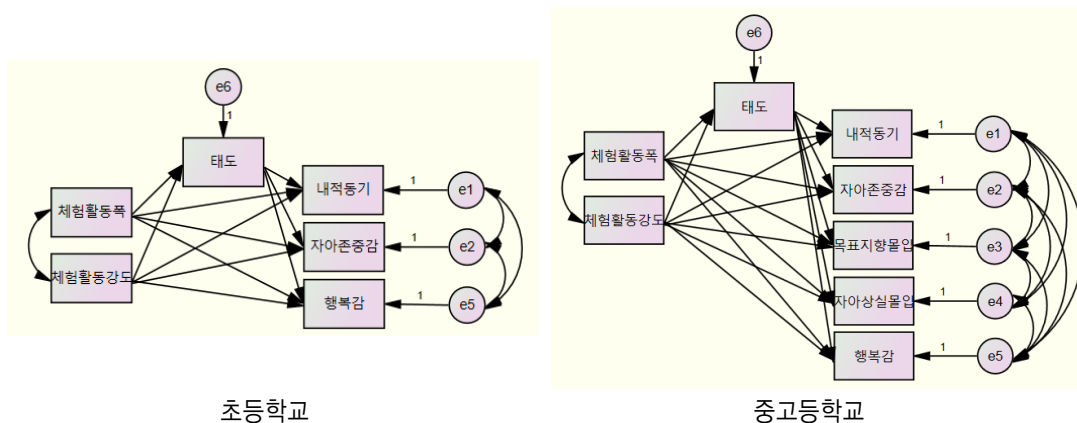
체험활동 참여의 폭과 강도는 청소년이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체험활동의 종류(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등)와 참여 수준(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등)으로 측정되었다. 매개변수로 설정된 태도 변수는 체험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15개 문항), 몰입변수는 이창호(2002)의 6개 몰입척도 중 ‘목표지향성 몰입’ 과 ‘자의식의 상실 몰입’ 의 두 가지 척도가 조사되었다. 또한 정의적 특성 중 동기변수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 등 세 가지로 구성되었으나, 체험활동 참여 변수와 외재적 동기, 무동기 간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아 내적동기만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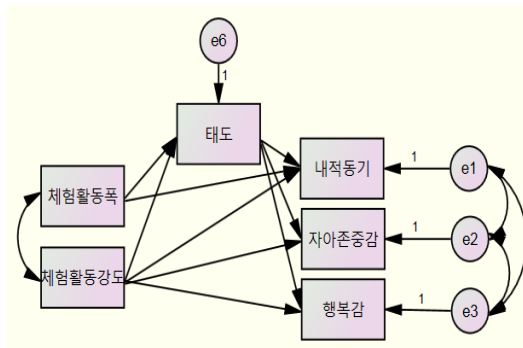
【그림 3】 체험활동 참여와 정의적 특성의 관계 개념도

①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가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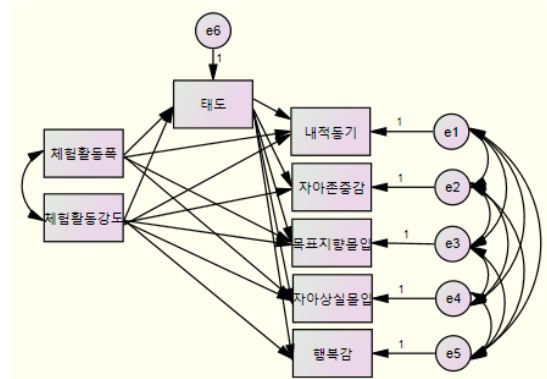
체험활동의 폭(참여의 다양성)과 강도(참여의 깊이)가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초기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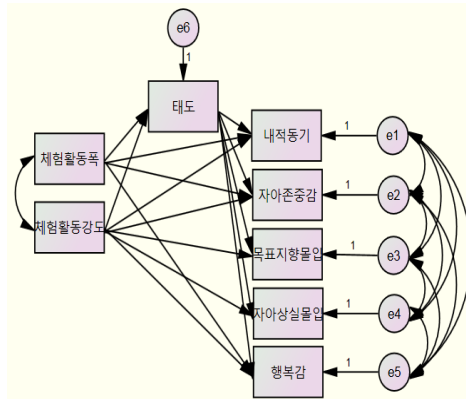
【그림 4】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영향(초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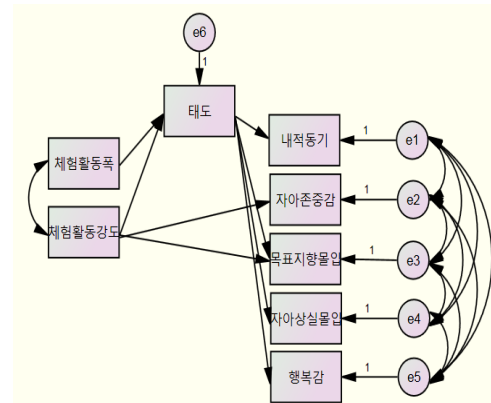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그림 5】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영향(연구모형)

[그림 4]의 초기모형에서 체험활동 참여의 폭과 강도는 정의적 특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초기모형에서 오차항은 서로 상관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는 경로를 삭제한 간명화된 연구모형과 이에 대한 추정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 제시된 연구모형은 [그림 4]와 비교하여 외생변수(체험활동의 폭과 강도)가 종속변수(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의 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간명화 모형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기준인 0.9 이상의 GFI와 0.05이하의 RMSEA 수준을 고려할 때(Kline, 1998), 모든 학교급의 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수준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체험활동의 참여 폭과 강도는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내적 동기, 자아존중감, 몰입, 행복감)에 대하여 모든 학교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표준화계수

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참여의 폭보다는 강도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는 폭과 강도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가 클수록 긍정적 태도를 가지며, 이는 다시 정의적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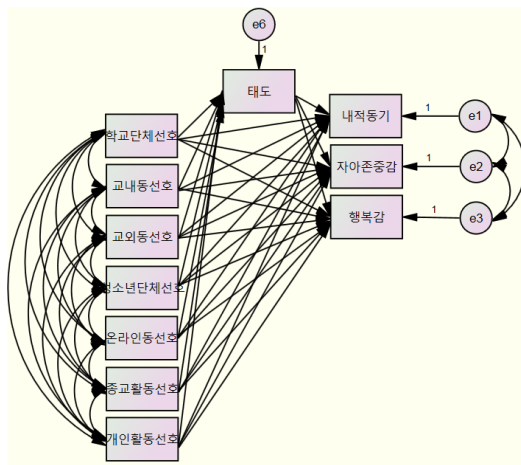
모형의 설명력은 중학교에서 가장 높으며, 체험활동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와 내적동기, 목표지향몰입에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체험활동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미약하다.

요약하면,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는 체험활동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험활동의 폭 보다는 강도가 청소년의 정의적 태도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학교급에서 가장 높은 체험활동 경험의 영향력이 나타나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체험활동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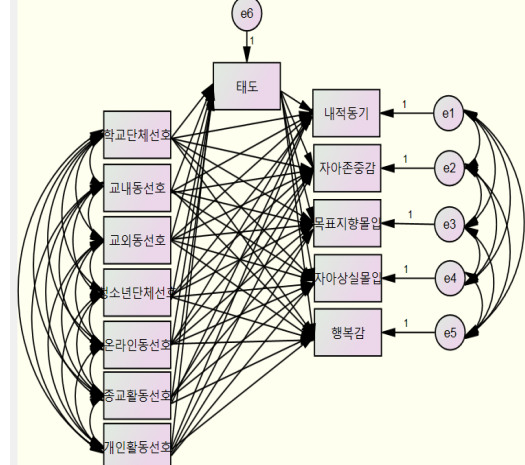
② 체험활동 참여방식이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체험활동의 참여방식(학교단체 참여, 교내동아리 참여 등 7개 유형)이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초기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6]의 초기모형에서 체험활동의 7개 참여방식이 정의적 특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초기모형에서 오차항은 서로 상관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는 경로를 삭제한 간명화된 연구모형과 이에 대한 추정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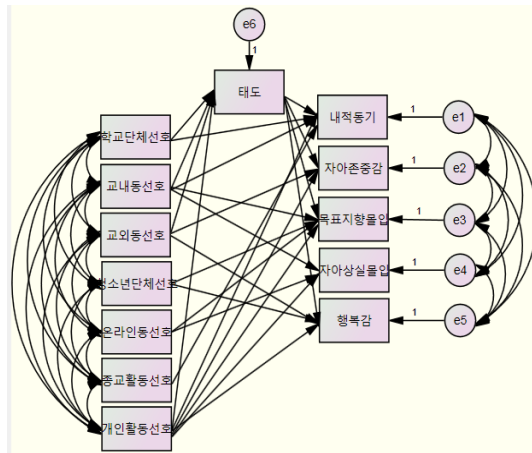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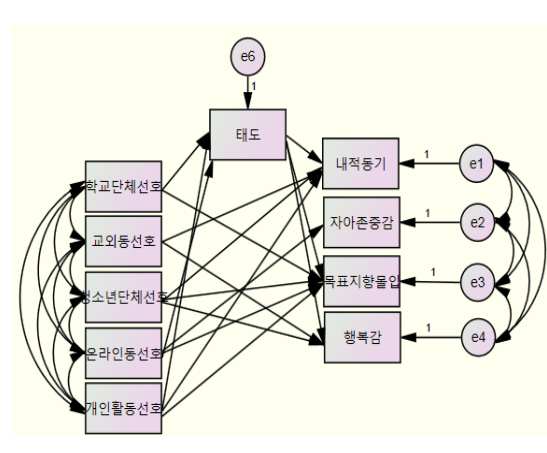


중고등학교

【그림 6】 체험활동 참여방식의 영향(초기모형)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그림 7】 체험활동 참여방식의 영향(연구모형)

[그림 7]에 제시된 연구모형은 [그림 6]과 비교하여 외생변수(참여방식)가 종속변수(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의 수가 줄었으며, 체험활동 참여방식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모든 학교급의 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다.

전반적으로 체험활동 참여방식 중 개인참여가 대부분의 정의적 특성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는 다른 학교급이나 일반고등학교와 달리 교외동아리, 청소년단체 등 자발적 참여방식이 정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형의 설명력은 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체험활동 참여방식이 내적동기와 목표지향 몰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그림 5]와 [그림 7]에 제시된 체험활동(폭과 강도, 참여방식)의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는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업 활동 등을 포함한 개인 및 학교 특성이 보다 광범위하게 분석모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은 체험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체험활동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학교 및 개인 맥락변수가 분석모형에 포함될 때, 체험활동의 고유영향과 이에 따른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형 범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 참여방식은 내적동기, 자아존중감, 몰입, 행복감 등 청소년 정의적 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라는 매개 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경로분석모형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2) 학부모 요구조사

(1) 조사의 개요

자녀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41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조사(FGD)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이상의 초·중·고생 자녀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서울의 강북지역 및 강남지역과 중소도시지역 중에서는 청주시, 읍면동 지역 중에서는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선정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강북과 강남지역의 차이가 현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두 지역으로 나누어 대상자 그룹을 선정하였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지역 중 한 곳(충청북도)을 선정한 후 중소도시와 군 지역을 각각 한 곳씩 선정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로 직장인과 전업주부의 비율을 50:50으로 구성하였다.

집단심층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구성은 <표 5>와 같다.

표 5 반구조화된 학부모요구조사(FGI) 질문지

조사영역	반구조화된 질문지
자녀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및 유형	○ 자녀들이 하고 있는 체험활동에 대한 인지 및 관심도 - 더 많은 체험활동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의견 ○ 자녀들이 하고 있는 체험활동 유형(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 학교/학교밖 체험활동/사적인 체험활동) ○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체험활동 실태 및 평가	○ 학교에서 하는 체험활동 횟수 및 기회의 적절성 ○ 자녀가 하고 있는 체험활동 실태 및 참여정도 -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및 학원 등에서 개인적으로 시 키고 있는 체험활동의 종류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학교 등에 대한 평가 - 체험활동 유형, 투여시간, 비용의 부담 정도 - 방과후학교 및 개인적인 체험활동을 시키지 않는 이유 ○ 자녀가 하고 있는 체험활동의 인성교육 등 교육적 도움 및 효 과에 대한 생각 ○ 학교(또는 학교 밖)에서 하는 체험활동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 선방향 - 학교 체험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의 선택 여부(강제성 여부), 원 하는 활동의 제한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 제공의 충분성 - (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학교 등)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 학교 체험활동의 예산지원 등 정부지원에 대한 생각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충분성 -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체험활동 경험과 학업·입시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 자녀의 체험활동과 학업/입시(입학사정관제 등)에 대한 도움 여 부 및 그 이유 ○ 향후 체험활동 경험의 대입 반영(입학사정관제 등)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지도 ○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평가	○ 수련활동에 대한 이미지 ○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 청소년 체험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센터 등)에 대한 평가

(2) 조사결과

가. 자녀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및 유형

① 자녀의 체험활동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하고 있는 체험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방과후학교나 학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학교내 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으며, 직장을 가진 학부모들의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 그 이유를 대체로 정보를 학교로부터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자녀를 통해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하다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으며,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가 일일이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방과후학교나 개인적인 체험활동의 경우에는 학부모들로부터 비용이 지불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 대부분은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경향을 보이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잘 응답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 만큼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학교에서의 자녀의 체험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자녀의 성별이나 학교급에 따라서 분명을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로 보자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인지도나 관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성별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당연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전업주부가 직장인에 비해 자녀가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강남과 강북을 비교할 때, 강남의 인지도나 관심이 강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지역 차이라기보다는 학교 선생님의 관심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비해 서울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② 자녀들이 하고 있는 체험활동 유형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외에 방과후 학교와 학교밖 체험활동을 모두 진행하나,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밖 체험활동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편이다.

전업주부들은 고학년 고연령대에서도 체험활동을 시키려는 경향이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서울에 비해 교과수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후 학교 체험활동을 위주로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평은 지역 시설이나 지역 전통 체험활동 내용을 위주로 시키며, 반면 청주는 증평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에 가까운 체험활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체험활동 정보습득 경로

전반적으로 체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찾을 때 인터넷이나 다른 학부모, 학교의 방과후 활동 안내문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초등학교에서는 다른 학부모를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한 편이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부모를 통한 정보 획득 정도가 전업주부와 직장인간 차이가 나타났다. 전업주부들의 정보획득 경로가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지역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체험활동에 대해 인터넷(특히 포털사이트)에 대한 활용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지자체 및 지역 내 시설(시설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나. 체험활동 실태 및 평가

① 학교에서 하는 체험활동 횟수 및 기회의 적절성

자녀가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및 활동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저학년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반면 중학교 고학년 이상에서는 적절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공통적으로 체험활동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표 구성 및 활동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② 자녀가 하고 있는 체험활동 실태 및 참여정도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순으로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시키고 있었다. 중학교 이후로는 학과 공부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체험활동의 횟수 등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스포츠, 예술 위주로 체험활동을 시키고 있으며, 비용 부담은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의견인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없거나 방과후 학교에 불만을 느끼는 학부모는 사교육을 찾고는 경향을 보였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강북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이 충분히 다양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의 경우 방과후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③ 자녀가 하고 있는 체험활동의 인성적/교육적 도움 및 효과

전반적으로 인성적/교육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으며, 본인이 즐기거나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해 시킨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일부 직장인 학부모는 교육적 효과보다 본인이 없는 시간 활용을 위해서 시킨다고 응답하였다.

④ 학교(또는 학교 밖)에서 하는 체험활동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체험활동의 경우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판단이 우세하였다. 동아리 활동 등의 경우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동아리나 모임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교에서 하는 체험활동의 경우 강제성이 있으며, 높은 학교급 및 고학년에서 강제적으로 체험활동을 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수련활동의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프로그램 정보 제공에 대해 강남과 서울 쪽이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며, 반면 지방은 현재 상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⑤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충분성

강남에 비해 강북지역 학부모들이 지역 내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전업주부에 비해 직장인 부모들이 지역 내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중평의 경우 시설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지역 내 기관들에 대한 신빙성이 낮고, 비용을 지불하려는 시설에 대한 요구도 낮았다. 반면 청주의 경우 시설은 있으나 비용 등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 체험활동 경험과 학업/입시와의 관련성

① 체험활동 경험과 학업/입시에 대한 도움 정도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는 현행 입시에서 체험활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일부 학생들에게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강남 학부모들이 강북 학부모들에 비해, 전업주부들이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과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에 비해 지역 학부모들은 체험활동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식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향후 입시에 반영에 대한 의견

향후 입시에 반영할 경우 학생 부담 및 사교육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라.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전업주부에 비해 직장인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자유학기제 자체에 대해 반대하거나 자유학기제가 1개 학기만 이루어진다는 것, 해당 학기에 체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불신감이 높았다. 중학교의 모든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시행하거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속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마. 청소년활동시설에 관한 평가

① 수련활동에 대한 이미지

수련활동에 대한 이미지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협동심을 꼽았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강제성을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기도 했다. 수련활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강제성, 기합, 벌, 교관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렸으며, 자녀가 수련활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경험했던 경우에는 수련활동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② 청소년 체험시설에 대한 평가

청소년 체험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센터 등)에 대해 학원에 비해서 질은 떨어지나, 전반적으로 만족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방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3)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FGI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중요한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춰져야 한다. 설문조사와 FGI조사는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의 참여 행태는 학교급이나 성별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들은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지역 간 차이가 보였다는 점도 수요자 요구에 맞춰져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둘째, 많은 청소년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그런 기대감도 높게 표출되었다. 청소년단체활동의 경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이러한 점을 반증해 준다. 결국 자발적 참여와 양질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이용경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률은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양적 확충에 대한 요구로만 해석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질이며, 수요자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많은 체험활동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 있다. 체험활동의 기회가 많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의적 영역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험활동이 적어도 인성발달에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체험활동의 기회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거기에는 임계점이 있을 수 있다. FGI결과 는 지금까지보다 지나치게 많은 기회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직 정책의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을 수 있으나, 학부모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체험활동의 양과 질, 두 가지 요인에 대한 보다 엄밀하고 과학적인 판단의 근거를 찾는 것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의 폭과 강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외국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험활동 촉진 정책은 문화자본의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그 같은 개연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또한 청소년활동사업이 청소년육성이나 청소년사업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구미국가나 일본이 지향하는 것처럼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1) 청소년활동정책 자원 분석 및 평가의 개요

청소년활동정책을 분석 하고 평가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2절에서 다룬 것처럼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위는 청소년활동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에 따라서 그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활동정책은 유럽의 ‘청소년사업’ 개념이나 일본의 ‘청소년육성’ 개념처럼 독립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공적인 서비스로서의 체험활동 수혜자를 일반적인 청소년에 한정짓지 않고 소외계층 청소년 또는 취약위기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 즉, 복지영역의 사업 중 체험활동을 매개로 한 사업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는 논쟁거리이다. 본 절에서는 복지사업의 성격을 띠, 더 정확히 말하면, 취약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중앙부처 수준의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정책 사업에 한정짓지 않고, 모든 중앙부처의 정책 사업을 모두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정책의 분석 및 평가대상 범위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청소년활동, 특히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모든 중앙부처의 사업으로 복지사업의 성격을 띠지 않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무부처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

(1) 역사적 평가

청소년정책의 기원은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청소년이 정책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이후의 일이다. Ariès(1962)의 생각처럼 청소년기를 근대의 탄생물로 보든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근대사회에 들어서라든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근대사회의 산물인 청소년정책은 근대사회에 들어서도 오랜 시간 청소년을 통제중심 또는 문제중심의 시각으로 봐왔다(金鉉哲, 2013, p.21). 1980년대 말의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5~1987)도 그런 시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 청소년육성법(1987)과 청소년기본법(1991)이 제정되고,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과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이 수립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는 청소년 문제중심의 청소년보호대책 중심으로 보던 시기로부터 청소년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은 분명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또는 문제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전 육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이 시기를 ‘청소년사업 2.0’ 시대로 부르거나(이광호, 2011), 청소년정책의 태동기, 도약기로 구분하기도 한다(김광웅 외, 2009). 이 시기는 청소년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지만, 특히 청소년활동정책이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되고, 독립된 청소년관련 법제가 만들어졌으며, 청소년육성정책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를 청소년활동정책의 태동기로 봐도 좋을 것이다.

[부록 그림 1]은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에 걸친 관련사업과 인프라가 축적되어온 발자취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책태동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기구분을 통해 청소년활동정책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시기를 구분하고 그 시기를 특정 시기로 명명하는 것은 정책을 요약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각각의 시기를 정확한 연도로 구분하기에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작업이 아직은 일천하다. 각 시기의 경계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시기의 구분은 정책의 변화를 요약적으로 말해준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책태동기’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시작되고, 청소년관련법이 제정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정책적인 의미로서 ‘청소년육성정책’의 태동기라고 부를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정책태동기’로 봐도 좋을

것이다. 청소년활동시설이 1989년 193개에서 2012년 738개로 증가한 것은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의 양적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 시기는 ‘정책차별화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시기로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시기이다. 교육과정기로 보자면, 제6차 교육과정기를 거쳐 제7차 교육과정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5.31 교육개혁조치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유보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 시기에 16개 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된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이 시기를 ‘정책차별화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육성정책’이 의도적으로 학교교육과 차별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정책대동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는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자격 검정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고, 청소년활동시설 인프라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학교 밖의 인프라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이미숙 외,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밖 청소년활동시설 인프라의 형성은 학교 내의 청소년활동과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맹영임 외, 2007)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부터 ‘제3차 청소년육성정책5개년계획’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청소년활동분야정책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련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조장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수립한다는 비전 아래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청소년지도자 양성 등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맹영임 외, 2007, p.30).

세 번째 시기는 ‘인프라구축기’로 명명할 수 있다. 대략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과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기에 걸쳐 있다. 정책차별화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기까지는 이른바 문화부시기이며, 청소년활동정책이 보호·복지 영역과 이원화된 시기이다.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정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국립청소년활동시설이 설립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프라구축기’라고 명명할 수 있다.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제4차 청소년정책5개년계획 수립연구’는 “제3차 청소년육성정책5개년 계획년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도입되었고, 청

소년활동정보시스템도 도입되었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도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청소년육성 기금공모사업의 비체계적인 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청소년활동정보 시스템 미흡, 참여의 이벤트화 또는 비일상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맹영임 외, 2007, p.51).

네 번째 시기는 다른 시기보다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 시기는 문화부시대를 접고, 청소년 정책이 새로운 부처로 이동이 시작된 시기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보건복지부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이르렀다. 10년이 채 안된 기간 동안 세 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었다. 대부분의 청소년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청소년활동정책이 위축된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원인을 부처의 이동이 잦았던 데서 찾는다. 그렇지만, [부록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이 다양해지고, 해를 거듭하면서 개별사업들은 안정화되어 가는 측면도 있다. 사업의 전체 구도로 보자면, 청소년활동시설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 193개이던 것이 740여개의 시설로 확충되었다. 국립시설들도 점차 증가하여 1998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개원한 이래 2013년 2개 국립시설이 완공되어 총 5개 시설을 갖추게 되며, 청소년참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같은 프로그램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를 ‘사업안정화기’라고 명명할 수 있다. 물론 네 번째 시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네 번째 시기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청소년의 역량개발이 강조되기 시작한 점이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시작하여 ‘역량개발’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되었으며(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관계부처합동, 2010),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역량’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는 이전보다 더 분명해진 측면이 있지만,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역량개념을 어떻게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지을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량’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청소년활동정책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최근 몇 년 사이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의 기회가 크게 증가한 점이다.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2011년부터 도입되어 2013년에 초·중·고 전 학년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었으며, 2013년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체험활동도 활발해졌다. 또한 학교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동아리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클럽활동 등이 강조되면서 학교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에 전면 도입될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학교 그야말로 체험활동으로 넘쳐나게 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학교 체험활동의 양적 팽창을 감안하자면, 네 번째 시기는 ‘학교 체험활동 강화기’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청소년활동정책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 만큼 학교의 지역사회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반면에 ‘태안해병대캠프 사건’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2) 현단계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평가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2011년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한국청소년활동의 길을 묻다』)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다음과 같은 평가들이 이루어졌다. 첫째, 청소년활동사업이 공적 서비스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이광호, 2011), 둘째,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 중심으로만 편재되어 있다는 평가(김기현, 2011), 셋째, 보다 실질적인 청소년참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평가(정건희, 2011; 김지수, 2011) 등이다. 본 연구과제의 예비적인 연구로서 이루어진 김현철(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활동개념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며, 특히 수련활동개념의 외연을 너무 넓혀 온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며, 오히려 청소년활동개념이야말로 외연을 넓혀야 하고, 청소년 역량계발의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을 완전히 차별화하여 네트워크 중심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시설 및 기관들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사업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지도인력양성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주도적 참여의 원리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활동정책에 있어서 지역격차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위 내용 중 청소년활동개념 재개념화는 3절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나머지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16시도 청소년전문가들에게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항목들은 크게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 ① 지역(시도)의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평가
- ②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특히,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에 대한 평가
- ③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평가
- ④ 청소년활동(수련)시설에 대한 평가
- ⑤ 청소년지도인력에 대한 평가
- ⑥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특히, 청소년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차별성)

위 여섯 가지 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2013년 7월에 벌어진 태안해병대캠프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 사건이 청소년활동정책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가. 시도 청소년활동정책 평가

시도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해서 모든 지역의 청소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자체의 중장기 계획이 없고 따라서 시도 고유의 정책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시도별로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것 이외의 중장기 계획이나 고유의 사업계획이 없으며, 시행계획도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내용을 수집해서 모아놓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은 지역의 공공이나 민간의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부상황이며, 따라서 사업 간의 연계성도 없고, 효율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 전담조직과 인력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 시도마다 담당부서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잦은 이동에 지자체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 만큼 지자체의 청소년활동정책 담당조직의 한계가 드러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담당공무원수는 줄어 들고, 예산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청소년복지사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는 담당공무원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한 몫하며, 이것은 잦은 인사이동과도 관련이 있다. 그 만큼 전문성을 쌓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육성위원회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면, 지역 고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서울시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시도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예 운영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다(표 6참조). 서울시를 포함해서 시도 및 시군구 지역까지 150개가 넘는 지역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은 그나마 주요 청소년정책 사항의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시도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정책 사업이 집중되기도 한다. 시도와 시군구 간의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또한 근본적으로는 전담인력의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지역 내 불균형의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정보체계라고 해봐야 서울의 ‘유스 내비’와 부산의 스마트폰 앱인 ‘e-락’이 전부이다. 시도 전반에 걸친 행정통계 시스템의 취약성은 지자체 청소년활동정책의 취약성을 대변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생산하는 행정통계나 평생교육기관 등의 통계체계는 중앙에서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반면,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통계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물론 이것은 청소년활동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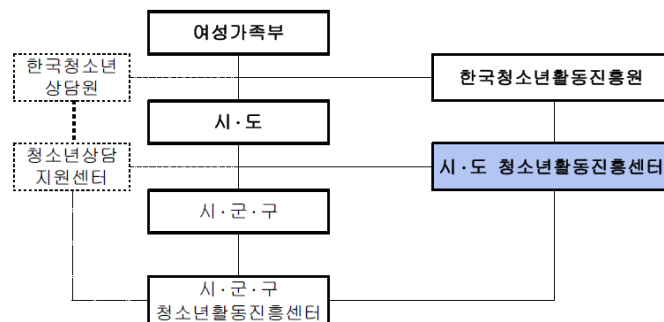
나.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는 주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며, 지역에서의 다양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첫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긴밀한 연계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물론 이것은 시도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지방 간의 문제이다. 또한 단순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시도센터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시도와의 관계도 작용한다. 시도센터의 입장에서 보자면, 센터는 시도와 한국청소년진흥원 모두를 상위조직으로 두고 있는 셈이다. 시도센터와의 관계는 시도센터가 직영 또는 통합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시도센터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진다. 설립주체의 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시도센터의 관계는 조직구조상으로 보면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통합법인으로서 국립시설을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국립시설들과 시도센터와의 관계는 상하관계도 아니며, 특별히 다른 연계성을 갖지도 않는다. 과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시도센터의 형태가 전달체계의 중심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원적인 전달체계가 있는 셈이다. 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6개 시도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국립시설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이다. 그렇지만, 후자는 지역의 시설이기보다는 국립시설이기도 하고, 실제로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향후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립시설은 현재까지는 지역사업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국립시설로서만 역할을 해왔다. 점차 국립시설이 확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시설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서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시도와 시군구 간의 연계 또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시도에 일관된 평가내용이다. 모든 지역에서 시도센터가 시군구 단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 점에 대해서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시군구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p.101). 그렇지만, 시군구센터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2013년도 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하면, 시군구 단위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정책과 청소년활동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그림 8참조). 이것은 과거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모델과 같은 형식이다. 전문가들 대부분 시군구 단위 센터설립의 필요성은 제기하고 있지만, 시군구 센터가 어떤 형태로 설립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은 없다. 조사에 응답한 일부 전문가들은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역 사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이 시군구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시도센터의 정체성 확립의 문제가 미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군구까지 확장되는 전달체계가 어떤 구도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지는 시도센터가 당면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에서 구상될 필요가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2012c), 「2013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p.127

【그림 8】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셋째, 시도와 시군구 간의 연계 또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시도에 일관된 평가내용이다. 모든 지역에서 시도센터가 시군구 단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 점에 대해서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시군구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p.101).

넷째,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도센터의 고유 업무를 청소년자원봉사지원업무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위임사업, 시도의 정책사업 중 어디에 두어야 할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핵심기능(청소년활동요구조사 및 제공,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역량강화, 청소년활동 홍보·지원,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중점 지원학교 등의 학교 등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정책과제 사업(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지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지원), 지역특성화사업 그리고 수탁사업(여성가족부, 2013c, p.134) 중 지역의 청소년활동 지원정책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력과 규모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상담복지업무나 기타 교육관련 업무와의 연계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탁운영으로 3년마다 재위탁심의를 받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기가 어려우며,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직영센터의 경우에는 고유사업과 청소년활동시설 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특별 법인화하여 신분안정성, 공공성,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조직이 보다 안정화된다면, 센터는 기능개편과 함께 지역의 청소년활동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보다 역점을 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활동정책 시행계획수립과 실천여부의 모니터링 기능과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활동정책의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기본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운영되므로 공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와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전달체계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협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평가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한수협)와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관계에 대한 평가이다. 현 상태는 지방협회를 한수협의 산하조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협회 대부분은 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조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수협에만 가입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지방협회에만 가입한 시설도 있다. 지방협회의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시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보다 강한 조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지방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방협회 가입비의 일정부분을 한수협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인 전달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이다. 한수협은 시설평가사업을 통해서 위상이 높아졌고, 2013년 ‘태안해병대캠프 사건’으로 인하여 평가주체로서의 책무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수협은 지방협회의 관계정립을 통해서 전국적인 조직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시도센터로 이어지는 공적인 전달체계와 공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여 협회를 구성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지역이 있는 등 모든 시도에 지방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표 6 참조).²⁾ 하지만 지방협회는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대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한국 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공조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회원기관의 회비를 통한 예산확보비중을 높임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여야만 공적인 전달체계와의 바람직한 공조가 가능하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제기해 오던 공공 청소년활동시설의 문제는 설립 이후 지원이 미비하며, 이 때문에 수익성 사업에 치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유 업무에 소수의 인력을 배치하게 되는 등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조사결과도 일치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전기세 60% 감면 등의 공공요금 감면을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혜택, 보조금지급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2) 2013년 현재 10개 지역 지방협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협회 설립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과 강원 두 곳이다.

최근 청소년활동시설의 설립주체를 위탁운영에서 재단설립운영으로 전환해 감으로써 비전문가 임원을 채용한다든지 목적사업보다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우선시 하는 경향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에서 이들 재단 소속 시설들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향후 시설의 설립주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예, 지금까지와 같이 대규모 시설 중심에서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 청소년문화의집보다도 작은 지역 거점 기관을 설립하고,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중심으로 활동하는 거점기관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경우에는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의 거점이면서 동시에 지역네트워크의 중심인 방식으로 기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최근 청소년활동시설과 관련해서는 2013년 7월에 벌어진 ‘태안해병대캠프 사건’의 파장이 커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러한 사건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처해오지 못했다는 반성적인 입장도 제기되었고, 향후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영난에 대한 우려도 표출되었다. 또한 향후 시설평가나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서 질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청소년활동시설 기관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인증제 및 안정성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고, 청소년활동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마. 청소년지도인력

청소년시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지도인력의 경우에도 임금 및 복지의 열악한 수준에 대한 문제점은 오래된 지적사항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이 높은 이직률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소년학과가 없는 강원도와 같은 지역은 인력수급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임금표준안 조차 없어 지역에 따라서는 배치지도사 기준으로 급료를 지급하는 지역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임금표준안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한 곳 뿐이다.³⁾

임금 뿐 아니라 직무표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2013년 현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화(NCS)에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직무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직무표준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임금표준안 작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3) 서울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

시설장의 경우에는 자격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채용이 되고 있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시설장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준하여 시설장 임용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청소년지도사의 복지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는 청소년지도사 법정 최소 인원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청소년활동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율 전국 평균은 30.7%: 표 6 참조)는 것과 국립시설 이용 시 50%할인 제도에서 전액무료로 전환하는 등의 복지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지도자공제회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학교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주말프로그램 등 비교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양성과정에서부터 실습을 강화하는 등 역량강화에 주력해야 하며, 자격검정제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보수교육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차별성

최근에는 청소년활동시설이나 청소년단체 이외에도 많은 기관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사업과 타기관의 유사사업의 차별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점에 동의하고 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아동·청소년과 이외에도 교육협력국의 주말체험활동 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사업들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진로체험사업과 유사하다. 방과후 사업이나 주말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이며,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컨설팅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하였다. 기타 지역의 평생교육시설, 지역의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유사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사기업이나 사교육시장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소년활동사업의 차별성은 더욱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청소년활동사업의 방향에 해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시도와 시교육청 MOU 체결을 통해서 청소년기관과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사와 청소년지도사 간의 공동연수 및 연구모임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소년기관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년활동사업에 있어서 청소년인권과 참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6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지역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설립형태	청소년수련시설 협회설립유무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 비율(%) (전국평균 30.7%)	청소년활동시설현황 †				
					a	b	c	d	e
서울	주요사항결정 ¹⁾	위탁	○(조례)	28.9	59	8.0	17.7	3.5	2.2
부산	형식적 운영 ¹⁾	위탁	○	25.1	23	3.1	6.4	3.7	1.4
대구	형식적 운영 ¹⁾	통합법인	○	34.8	12	1.6	5.2	2.4	1.1
인천	형식적 운영 ¹⁾	위탁	○	27.7	25	3.4	5.7	4.6	1.8
광주	형식적 운영 ¹⁾	위탁	○	40.0	11	1.5	3.5	3.3	1.4
대전	형식적 운영 ¹⁾	위탁	○	33.6	13	1.8	3.4	4.0	1.6
울산	형식적 운영 ¹⁾	위탁	X	22.2	9	1.2	2.4	3.8	1.0
경기	형식적 운영 ²⁾	위탁	○	34.4	144	19.5	25.1	6.0	3.2
강원	형식적 운영 ¹⁾	위탁	○(조례)	33.5	77	10.4	3.0	26.6	13.6
충북	형식적 운영 ¹⁾	통합직영	○	26.6	43	5.8	3.2	14.1	8.5
충남	형식적 운영 ²⁾	통합법인	X	24.9	46	6.2	4.3	11.3	5.3
전북	형식적 운영 ²⁾	위탁	○	28.1	53	7.2	3.8	14.7	5.1
전남	형식적 운영 ²⁾	통합법인	X	37.4	44	6.0	3.5	13.2	6.9
경북	형식적 운영 ²⁾	통합법인	X	30.3	66	8.9	5.0	13.8	5.5
경남	형식적 운영 ¹⁾	통합법인	○	32.9	71	9.6	6.6	11.2	4.8
제주	형식적 운영 ¹⁾	위탁	X	24.7	43	5.8	1.3	35.5	9.4

† 청소년활동시설현황 자료: a=청소년활동시설수, b=청소년활동시설수 시도비율, c=학령인구(6~21) 대비 시도별 학령인구 비율, d=학령인구 10만명당 시설수, e=시설수용인원/학령인구(%)

*1: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2: 기초자치단체 조례만 제정된 지역

자료: 김혁진, 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김문주 (2012).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자료(내부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의견조사결과로부터 작성

3)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및 평가

(1) 중앙부처별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의 개요

중앙부처별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자원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각 부처의 2012년에 국회예산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설명자료(Ⅲ)』이다. 이 자료에는 2013년도 각 부처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세부내역과 사업의 특징과 주요연혁, 관련법, 국회 또는 감사원 등의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등 중앙부처의 모든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자료로부터 34개 중앙행정기관의 2013년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내용을 추출해서 하나의 표로 제시한 것이 <부록 표 2>이다. 34개 중앙행정기관 자료 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총 27개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각 부처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들을 추출해 낸 후, 크게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근거 및 예산액’ 자료를 추출하였다.

<부록 표 2>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가장 왼쪽 행의 부처명 아래 괄호 속의 수치는 해당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총예산액이다.

둘째, 프로그램 및 사업 행의 사업명은 예산설명자료(Ⅲ)의 단위사업명이다. 바로 오른쪽 세부사업명은 단위사업 내용 중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내용만 추출한 것으로 세부사업명별로 괄호 속에 예산액을 기입하였으며, 이 예산액의 합을 단위사업명 다음 괄호 안에 기입하였다. 단위사업이 복수인 경우에는 단위사업의 총합계 예산액이 해당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총예산액이 된다.

셋째, 시설 및 기관 행의 사업은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기관이나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들이다. 이 사업명의 후미에도 예산액을 기입하였다.

넷째, 전문인력 행의 사업은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는 배치와 관련된 사업들이다. 이 사업명의 후미에도 예산액을 기입하였다.

다섯째, 마지막 행에는 각 사업예산의 종류와 해당부처에서 생산한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계획들을 기입하였다.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각 항의 예산액 중 괄호표기만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이며, ‘*’로 표기한 예산들은 특별회계이거나 기금들이며, 부처별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종류를 표기하였다.

여섯째, 초등학교부터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출한 자료이다. 일곱째,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 대상사업 또는 복지사업은 제외하였다.

여덟째, 사업에 따라서는 순수하게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단, 세부사업에서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정리하였지만, 아동에서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를 테면, 박물관 운영과 같은 사업은 포함시켰다.

아홉째, 학교교육과정 중 교과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제외시켰으며, 정규학교 건립과 관련된 사업도 제외시켰다. 다만, 학교 밖 활동과 관련된 시설이나 교과 이외의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은 포함시켰다.

(2) 분석결과

<부록 표 2>의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별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자원을 분석하는 첫 번째 목적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추진 사업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총액은 102,569백만원으로 모든 부처 예산총액 1,468,891백만원의 7.0%에 해당한다. 분석대상범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액의 폭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대략 여성가족부 예산의 14배 정도의 정부예산이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된 예산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수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예산규모는 더 낮을 수도 있지만, 비예산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을 포함시키면 비중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 예산규모를 사업영역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및 사업은 1.1%이고, 시설 및 기관은 41.2%, 전문인력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시설이나 기관의 규모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프로그램 및 사업이나 전문인력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예산대비 비율이어서 실제 전문인력의 분야와 수를 엄밀히 고려하게 되면, 비중은 더 낮아질 것이다. 시설 및 기관의 경우에도 학교가 제외된 점을 따지면, 실제 비중은 훨씬 낮을 수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사업 중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참여활동 제도는 타부처의 사업과 비교적 차별적이지만, 안행부의 민주운동기념사업 등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타 사업들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정행정부의 비중도 높다. 그 밖에 부처들의

사업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타 부처들의 전체 사업규모는 여성가족부 사업 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이다.

셋째, 시설 및 기관의 규모는 여성가족부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시설과 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이 청소년활동정책에서는 주력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활동사업의 차별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과 기관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에 과학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체육관시설도 점차 늘고 있다. 문화예술부문에 있어서는 중앙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있고, 전국에 13개의 국립박물관(중앙, 경주, 광주, 전주, 부여, 대구, 청주, 김해, 제주, 춘천, 진주, 공주, 나주 등)이 있으며, 어린이박물관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연전시지원센터를 통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나 야외공연 상설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 미술관 건립도 확충되고 있으며, 국립시설로 국립생물자원관 자생생물 전문 전시관, 농업과학관도 운영되고 있다.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방안전체험센터, 발명교육센터도 설립·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전문인력의 규모는 기준에 따라서는 훨씬 적은 규모로 추산될 수도 있다.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문화예술강사, 스포츠강사를 비롯하여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커리어코치, 학부모 커리어 코치, 진로진학상담교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이들 인력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중복되면서 영역별 전문성은 보다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지도사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청소년활동사업을 견인해갈 인프라로서 기대역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섯째,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일반예산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전부이지만, 각 부처의 예산 출처를 보면, 그 밖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복권기금, 국제교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특별교부금 등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앙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정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은 예산규모 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전 부처 사업 중

하나의 사업, 즉 ‘one of the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무부처의 청소년활동정책이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거나 외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새로운 정책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총괄조정을 위해서 이러한 중앙부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중앙부처의 자원분석은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며, 이들 예산은 보다 과학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반드시 중앙부처 단위에서의 총괄조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연계를 통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단위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청소년활동정책관련 자원들이 철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만 해도 적지 않은 가시적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 청소년활동사업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측면에서 차별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회전반적인 유사사업을 리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활동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공헌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양보다는 질’을 선택해야 한다. 그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차별화된 방법은 모든 청소년활동사업에 청소년의 참여적인 요소 또는 자기주도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시설 및 단체도 이를 바탕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4) 종합적인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청소년활동정책의 자원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는 198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개별사업들은 안정화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향후 예산확보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이지만, 지역의 청소년활동상황을 보건대, 현재로서는 전달체계,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미제의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질적인 도약’이다. 여전히 전달체계의 수직적·수평적 체계는 취약하며, 지자체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정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청소년활동정책은 차별화되기보다는 주변화 되었다. 이 때문에 청소년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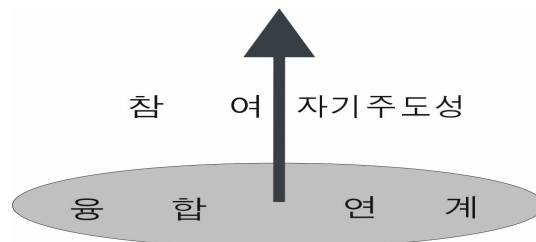
전담공무원제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생기지만, 지역에서의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무부처의 청소년활동사업의 규모는 전 중앙행정기관 관련 사업의 7%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총괄 조정해야 하는 대상부처 사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업은 중복적인 사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활동관련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이 중요하지만, 지역연계를 통해서 사업 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총괄조정만으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의 청소년활동정책은 규모면에서는 또 하나의 사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사업들은 차별화되어야 한다. 즉,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사업으로 타 부처 사업들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청소년들의 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의 청소년참여제도의 질적 도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관련사업에서의 청소년의 참여, 자기주도성을 높여야 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은 지역에서 그 역할을 주도하는 거점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지도 전문인력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한 마디로 현 단계의 청소년활동정책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도약에 중점을 두고 성장해가야 한다.

6.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방안: 질적 도약을 위한 제언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화 전략은 수직적 수평적 연계 또는 융합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과 청소년의 참여 또는 자기주도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그림 9)



【그림 9】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의 원리

1)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과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활성화 방안

- 지역에서의 사업간 연계를 위한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지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면,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사업간 연계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지역단위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은 중앙부처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총괄조정방식이 바람직하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은 청소년활동정책에 한정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 수준에서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체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제정은 지자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지역의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신설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시도 지역 뿐 아니라 많은 시군구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만 서울특별시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외에 기타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시행령 규정의 마련과 조례제정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마련 이외에는 두 가지 방법을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 지역의 청소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지표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정책 종합평

가지표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실적만을 넣기보다는 청소년친화지수와 같은 보다 포괄적인 지표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이다. 셋째,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여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가칭 청소년정책종합평가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의 청소년사업 또는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거나 리드해 갈 수 있는 조직이라면, 어떤 형태이든 구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축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협회나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될 수도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방법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지역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자체가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뒤에서 제시할 전달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과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단위정책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연계사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연계사업이야말로 청소년활동정책 및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더군다나, 점점 지자체나 지역의 교육청으로 청소년활동관련 정책들이 이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활동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청소년활동정책 장기비전 및 목표 설정 필요

- 청소년활동개념 재정립을 위한 학문적인 논쟁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관련학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기본법」의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활동개념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련활동’의 외연은 너무 넓으며, 수련활동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 또한 청소년활동정책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개념으로서는 수명을 다하였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념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미 청소년활동은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제3조 제3항에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

고, 다시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에서 이 세 가지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부터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의 방향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하나의 방편은 청소년활동을 세 가지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지 말고, 다소 중복되더라도 문화예술활동, 여가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련활동 등으로 나열함으로써 일단은 수련활동의 의미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기타 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 ‘수련’을 삭제하고,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인증제’ 등의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

- 아울러 청소년활동개념과 청소년역량 개념 간의 관계를 법규상에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역량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2항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의에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를 ‘청소년의 역량을 계발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다’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역량의 개념을 ‘청소년육성’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역량계발이 이미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청소년활동이 반드시 청소년의 역량계발을 목표로 하지 않고 청소년육성의 수단인 하나이며,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사업이 청소년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활동정책이 별개의 정책이기보다는 청소년육성사업 또는 청소년사업의 틀 안에서 상호연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전문인력, 청소년활동프로그램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시설의 장기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국립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의 확충계획을 중장기적인 수요예측과 현 단계의 문제점을 토대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설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시설경영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발전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청소년활동시설들을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타 배치지도사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임금표준안 제정 등 세세한 전략들을 목록화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기존의 협회와 조직들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태안해병대캠프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강화가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청소년활동시설의 공공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인 변화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어렵다. 청소년활동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하며, 학교와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 학교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2012년과 2013년에 추진한 ‘지역사회연계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연계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간 MOU 체결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과 학교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의 국립시설을 이용해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청과의 MOU 체결을 통해서 교원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강사요원과정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은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관은 단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중심에서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와의 연계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하거나 지역학교장협의회 등의 조직과의 소통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청소년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기관이 학교를 찾아가기보다는 학교가 청소년기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일상적으로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기관의 운영위원회에 학교장이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퇴직 교육공무원 등 교육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청소년기관은 학교의 학교운영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상시적인 접촉창구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 청소년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셋째,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현재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들,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 청소년문화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참여기구운영 등 청소년활동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각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운영계획이

필요하다. 단위사업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전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청소년활동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복지 영역과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소간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합운영하고 있듯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기 힘든 상황이다.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사업이라는 통합적인 틀에서 보았을 때는 통합운영이 맞지만, 통합운영에 따라 자칫 청소년활동영역이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중앙부처의 장기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별 장기발전계획수립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계획은 앞으로는 정책의 큰 방향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 수준에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요원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기점으로 지자체 나름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제고 방안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잦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청소년업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또한 한계가 명백하며, 현재로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업무를 추진할 시스템을 갖추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같은 조직의 구성이 중요하다. 담당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지역의 인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속도는 더디더라도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는 지역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대구시 수성구 한 곳 뿐이다. 대구시 수성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 869호, 2013.3.30)를 두고 있다. 아직까지는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다. 조례의 제정이 출발선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임용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를 일괄로 모든 지역에 배치하려는 노력보다는 한 지역씩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4)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의 재정비 방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현재 진로정책과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 내 관련 부서별로 별도로 조직된 중앙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을 위한 중앙협의체와 진로교육중앙협의체가 그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두 협의체가 실효성 있는 협의체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독자적인 중앙협의체 기구를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선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그리고 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 등의 청소년현장 조직을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자유학기제 운영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체 참여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중앙협의체 역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중앙단위에서의 이원화된 전달체계, 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원화된 운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두 기관간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더욱이 지역에서의 허브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사업수행 비율을 낮추고 허브기능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계기로 운영하기 시작한 지역사회협의회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중의 하나이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또한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이 역할은 2012년과 2013년 ‘지역사회연계 모델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이 컨설팅사업은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핵심 업무가 되어야 한다.

- 시군구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이 정책 사업 중심의 기능이라면 여타 청소년활동시설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센터의 기능을 먼저 강화한 후에 점차적으로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설립하더라도 새로운 기관이나 시설의 설립형태가 아닌 기존의 시군구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활동시설에 두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다만, 시군구상담복지센터에 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청소년활동정책과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복지 정책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두 가지 업무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며, 업무의 전문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5) 청소년지도인력양성 시스템 개선

- 가장 먼저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요건으로 현장실습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장실습을 의무화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도 예상되지만, 양질의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 실습 청소년활동시설이나 청소년단체 등이 현장실습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습기관을 반드시 청소년기관에 한정짓지 말고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이나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과정도 지금보다는 연수과정을 강화하되, 지금까지와 같이 강의 중심의 연수에서 다양한 실습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현장실습과정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일반교육보다는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특히, 특기적성분야별로 교육과정을 전문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기관별 교육보다는 전문과정별 교육과정개발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6)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통계체계의 수립

-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학교 내 체험활동, 학교 밖 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주말체험활동, 직업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반복횡단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기본 틀로 하는 조사여야 정책적인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 점을 의식하여 실시되었으며, 본 과제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반복횡단조사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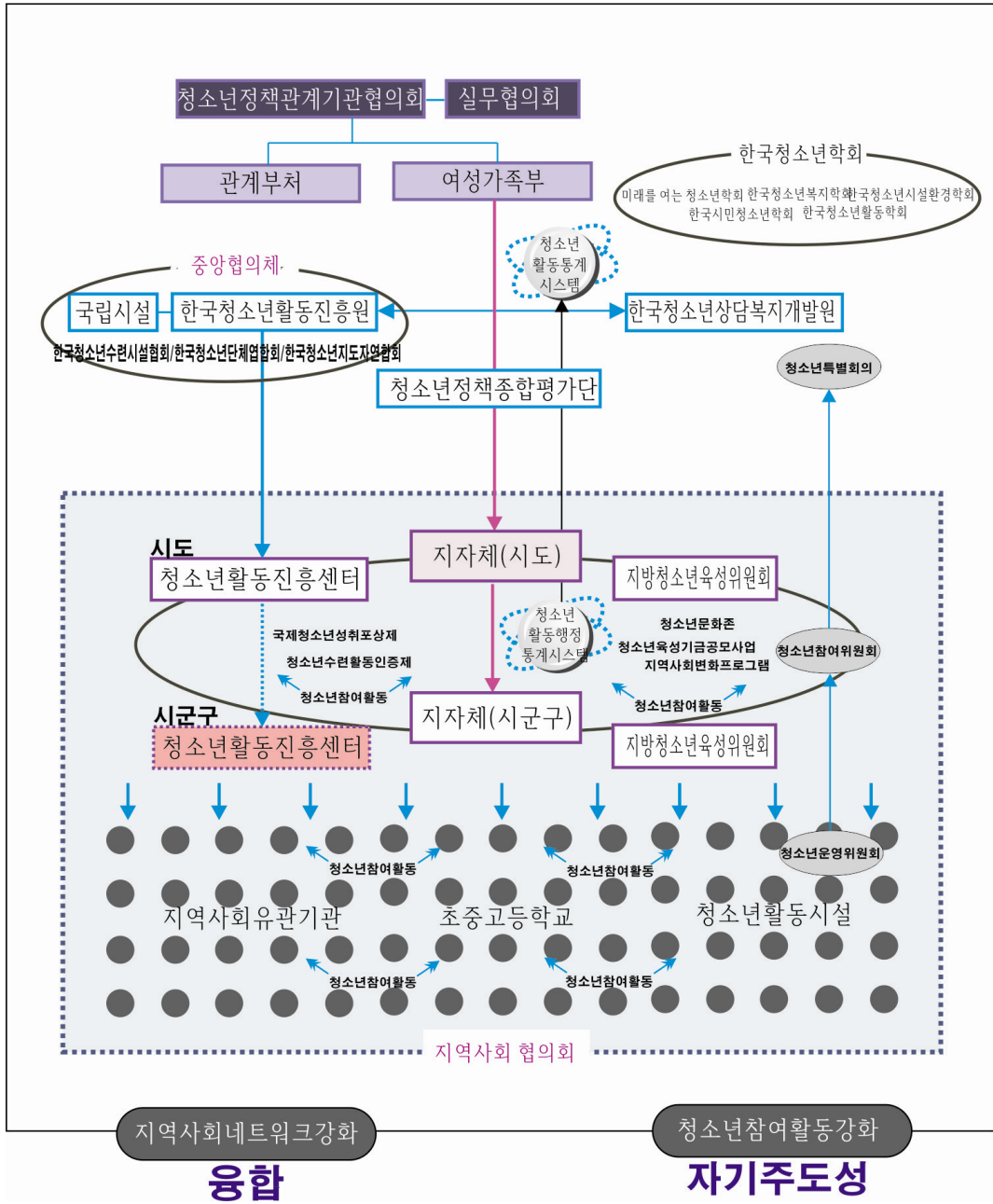
- 2012년에 청소년수련시설통계편람이 생산되었다. 향후 주기적으로 이 같은 통계편람이 생산되어야 하겠지만, 청소년활동시설 및 단체, 협의회 등에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행정통계가 수집·정리되어야 하고, 이 통계는 지자체가 생산하여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및 자체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되어야 하며, 지자체별로 백서와 같은 형태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이 역할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맡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7) 청소년참여를 핵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 향후 청소년참여기구활동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들, 즉, 교류활동, 청소년문화존, 청소년공모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통합하거나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청소년활동이든 반드시 ‘참여’ 또는 ‘자기주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수한 강사 또는 운영자는 지역사회에 얼마든지 있다.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특징은 ‘자기주도적인 참여’에 있다.
- 모든 프로그램에서의 자기주도성이 담보된다면, 청소년참여기구들은 다양한 자기주도적 참여활동의 수렴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이나 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보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태안해병대캠프 사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처법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비참여적이고 훈육적이며, 때로는 인권침해적인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청소년 참여’의 원리를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청소년활동정책의 차별화하고,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8) 청소년 관련 학회의 통합과 연계

- 청소년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도 청소년 관련 학회는 통합·연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청소년학회를 모학회로 하여 여타의 청소년 관련 학회들이 분과학회 형식으로 통합·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학회의 통합과 연계는 청소년계 전체의 융합과 통합을 이끄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림 10】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추진체계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정책의 이념의 핵심이 되는 청소년활동개념과 관련한 결론이다.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활동개념을 재정립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개념이 혼용되기도 하고,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개념을 정립하는 일은 정책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검토하고, 관련법상의 개념을 분석한 끝에 얻은 결론 중의 하나는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었다는 점이다. 청소년수련활동개념은 청소년활동정책의 이념적인 역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청소년활동개념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빚거나 아니면 보편적이거나 일상적인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버려 앞으로의 청소년활동정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다. 최근 교육계나 사회전반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관련 정책을 담보해내고, 수요자들과 소통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이라는 결론이다. 이러한 점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위설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하나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사업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구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사업(youth work)을 청소년활동개념의 대체개념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것이다. 결론은 청소년사업은 청소년활동을 포괄하는 청소년육성개념에 가깝다는 것이다. 청소년사업은 청소년활동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육성개념이 더 가깝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청소년활동은 보다 특화는 어떤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활동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점은 이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 중의 하나이지만,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즉,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보호나 청소년복지 영역에서 분리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그간에 지향해 왔던 청소년활동정책에 근본적인 물음에 제기한다.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른바 일반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약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정책이 차별화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와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데 있지만, 동시에 청소년 체험활동이 강화되면서 문화자본의 격차를 유발할 가능성도 커졌고, 또한 체험활동은 취약위기청소년들에게도 동기를 갖게 하거나 자아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체험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결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볼 때 청소년활동정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청소년보호 및 복지영역과 점진적으로 통합되어가는 모델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및 학부모대상 요구조사 그리고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얻은 결론은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청소년활동정책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 상황을 보더라도 양적인 확대가 반드시 청소년활동정책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청소년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결론도 마찬가지이다. 체험활동의 기회는 계층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이것은 향후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분석한 모든 자료들이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은 양보다는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정책제언을 통해서 제시하였지만, 질을 담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각종 사업을 잘 융합하고 연계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더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사업을 잘 연계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서 비효율적이거나 비효과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나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가급적 자기주도적인 체험활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너무 많은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운영주체도 많아졌다. 단순히 강사가 투입되거나 개인의 요구에 맞추지 못한 집체형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기주도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되며, 최근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한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 청소년활동정책은 더욱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 강경빈, 문동규 (2006). 청소년의 여가활동유형과 참여정도에 따른 몰입경험 비교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7(5), 905-916.
- 강명숙, 이현림 (2007).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습부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도기에 미치는 효과. **직업교육연구**, 26(2), 1-18.
- 강봉화 (2004). 여가활동 참여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와 학교생활만족도간의 인과관계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1, 741-751.
- 강선영 (2010). 스포츠여가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1), 115-123.
- 강성구 (2007). 청소년의 태권 수련활동이 정서와 신체적 자기 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리서치**, 18(4), 683-692.
- 강진령, 이영주 (2009). 진로의식, 탐색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동기와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2(1), 113-125.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고종욱, 김민환, 김기운, 정일호 (2006). 청소년기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 유형과 정도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7(5), 867-874.
- 공성배, 이원희 (2008). 청소년의 e-스포츠 참여정도와 몰입정도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121-131.
- 관계부처합동 (2010).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08~2012)**. 서울: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1).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 구본행, 김을교 (2002). 청소년의 레크리에이션활동 참여정도와 도덕성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6(2), 5-19.
- 구창모 (2004).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3(5), 91-100.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2007).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보호백서 2002**. 서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권순용 (2010). 청소년기 스포츠 참가의 의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5-13.
- 권일남, 김영철 (2006).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4(2), 33-43.
- 권일남, 이창식, 김태균 (2011).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보고서 : 역량계발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세미나 11-S37), 3-61.
- 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김영철 (2008). **청소년활동지도론**. 서울: 학지사.
- 김경란 (2004). 초등학생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가 자아신체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1), 593-602.
- 김광웅, 이종원, 천정웅, 이은교, 길은배, 전명기, 정효진 (2009).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귀봉, 김영수 (1999). 청소년기의 스포츠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과학연구 소논총**, 18, 51-60.
- 김기현 (2011).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원1주년 기념 청소년활동 토론회: “청소년 활동, 다시 길을 묻다” -청소년활동의 과제와 대안**.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영 (2013a). 공부압력과 공격성간의 경로모형 검증 -청소년활동,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4), 225-243.
- 김도영 (2013b). 부모감독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과 교사애착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0(6), 315-336.
- 김도영, 임영식 (2013). 청소년활동과 비행 간의 경로모형 검증 -자기효능감, 적응유연성,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5), 157-182.

- 김동배, 조학래 (199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1, 147-170.
- 김명희, 신현숙 (2007). 초등학생의 진로태도, 진로이해,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활동중심 및 수업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1), 23-40.
- 김미성 (1997).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 인성에 미치는 영향. **동광**, 94, 60-82.
- 김미연, 김정해 (2013). 중학생의 동아리학급활동이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K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2(1), 139-157.
- 김민 (2010).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체험(수련)활동 개념에 대한 문화론적 비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126-141.
- 김민섭 (2004). 아동의 방과후 체육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3(6), 105-113.
- 김범식, 박종진 (2000). 방과후 체육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9(4), 101-112.
- 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성택, 김주훈 (2003). 청소년 야외활동이 사회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4(4), 747-759.
- 김수겸 (2007). 초등학교 아동의 인지적 운동능력과 선호도 및 방과 후 신체활동참여가 심리적 욕구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8(4), 747-756.
- 김수호, 이태욱 (2013). 컴퓨터활용교육 II: STEAM 기반 창의적 체험활동이 초등학생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7(1), 41-44.
- 김아영 (2010). **학습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영수 (2001). 청소년기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집단 응집력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체육학회지**, 11(1), 21-30.
- 김영호 (2012). 청소년 활동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년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육성, 수련, 활동, 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1-20.
- 김용규, 정난희, 김주호 (2009). 야외수련활동에 참가한 초등생의 성취감과 자아개념의

-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1), 659-667.
- 김윤나, 박옥식(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 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79-99.
-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종백 (2010). 청소년 체험활동의 교육심리학적 논리와 근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101-110.
- 김지수 (2011). 지역중심 청소년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원1주년 기념 청소년활동 토론회: “청소년 활동, 다시 길을 묻다” -청소년활동의 과제와 대안-**, 69-75.
- 김지연, 이영순 (2011).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331-331.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창환 (2010). 청소년체험활동의 교육철학적 의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74-87.
- 김철주, 최미란 (2008).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형태와 정서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2(3), 13-25.
- 김혁진, 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김문주 (2012).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김현철 (2012).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2013a).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모색 -일본의 청소년체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세미나 자료집** (13-S05), 23-45.
- 김현철 (2013b).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1, 1-30.

- 김현철, 이기봉 (2011). **일본 케센누마시의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 사례집**.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최창욱, 오해섭, 이춘화, 김지연 (2010).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연구보고 2010-38). 서울: 여성가족부.
- 김현철, 황여정 (2012).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미간행).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연구보고 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진, 황명자 (2009). 방과후 학교 생활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6), 185-193.
- 김홍석 (2008). 방과후 태권도 수련을 통한 청소년의 신체적 자신감이 자아존중감 및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2(1), 517-526.
- 나명훈, 최종연 (2006). 중학생의 여가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6, 345-354.
- 남승구 (2002).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친 사회적 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1(2), 111-117.
- 노규식 (2010). 방과후 활동에 대한 뇌과학적 관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14-25.
- 도종수 (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1-45.
- 문경숙, 김현철, 김지연, 민경석 (2008).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연구Ⅲ-총괄보고서** (연구보고 08-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2009). **2009년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및 효과성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문성호, 문호영 (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문용, 강봉화 (2004).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기간별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3, 59-69.

- 문화관광부(2000, 2001, 2003, 2004).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부(1994). **청소년백서 1994**. 서울: 문화체육부.
- 민전순 (2013). 핀란드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영국 핀란드· 스웨덴· 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40), 31-60.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경목, 서보운 (2011).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학급 단위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2), 45-69.
- 박경석 (2009). 초등학생의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6, 469-478.
- 박병국 (2004).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용 및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1, 633-644.
- 박선영 (2013). 영국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영국 핀란드· 스웨덴· 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40), 1-29.
- 박성준, 김재현 (2007). 청소년의 스포츠여가프로그램 참여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체육학회지**, 17(1), 1-12.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재숙 (2011). 초기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4), 47-69.
- 박정화 (2009). 아동의 방과 후 스포츠 종목과 참여 수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5), 535-545.
- 박주희 (2010). 초등 도덕과와 연계된 창의적 체험 활동 : 자율활동 관련 대화저널 쓰기를 통한 도덕적 교실공동체 형성방법. 2010년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 연차학술대회 발표원고**. 216-253.
- 박진성, 조춘호 (2000). 단전호흡 수련과 스포츠활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4, 155-165.
- 박충효, 변재출, 류호상 (2006). 방과 후 12주간 자율체육활동이 남자고등학생의 체력과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14(4), 101-109.

- 박혜란 (2007).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1(4), 5-18.
- 배미희, 김홍순, 김청송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현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9), 309-325.
- 배성민 (2003). 청소년의 태권도 여가활동 수련기간과 여가만족과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4(5), 925-936.
- 변영호 (2010). 초등 도덕과와 연계된 창의적 체험 활동 : 동아리 활동을 통한 창의/인성의 함양. **2010년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 연차학술대회 발표원고**, 85-110.
- 변해심, 노재현 (2011). 초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여가스포츠참가와 심리적 웰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4(1), 479-492.
-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동·청소년백서 2008**. 서울: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백서 2009**. 서울:보건복지가족부.
- 설민희 (2009). 청소년의 문화 활동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1, 140-172.
- 성은모, 이해연, 황여정, 변수용, 유승훈, 이주석, 정동원, 이승재 (2012).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서울:여성가족부.
-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손준구 (2001). 방과후 조직적 체육활동의 초등학생 집단따돌림 (왕따) 감소효과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8(1), 119-129.
- 손연희, 서영환 (2012). 방과후 재즈댄스활동이 여자중학생의 신체형태 및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0(2), 95-100.
- 송병국, 박정배 (2006). 청소년의 활동경험과 진로선택준비도와와의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19(2), 33-50.
- 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청소년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21-147.
- 신선미 (2013). 프랑스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29), 33-65.
- 신선영, 송명자, 이현림 (2009).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성

- 및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2(1), 145-170.
- 신세운 (2004). 댄스스포츠 교육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7, 35-42.
- 신은섭 (2010). 초등 도덕과와 연계된 창의적 체험 활동 : 적응활동 지도를 통한 창의/인성의 함양 -정보윤리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2010년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 연차학술대회 발표원고**, 119-145.
- 신정현, 전선헌 (2012). 방과 후 체육특기적성 활동참여가 학생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6(3), 1-14.
- 안은미, 이지연, 정익중 (2013). 정서학대가 또래애착과 교사애착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201-226.
- 안정덕, 한남익, 조쟁규 (2003).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리 체육활동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4(4), 885-896.
- 양수민, 주희진, 조규판 (2009). 특성요인이론에 따른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학연구**, 22, 45-64.
- 양종훈, 이종하 (2010).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 343-350.
- 여성가족부 (2010). 201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 201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b).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c). 2013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d).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활동」**. 서울: 여성가족부.
- 염두승 (2003). 청소년 후기 스포츠활동 참여수준에 따른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2(6), 211-221.
- 염두승, 이영민, 윤상문 (2004).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수준과 일탈수준과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5), 1181-1188.
- 유성렬 (2012). 청소년 역량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년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육성, 수련, 활동,**

- 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21-46.
- 윤만수, 강진홍 (2001). 스포츠 활동 참가가 중, 고등학생의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4(1), 173-183.
- 윤명희, 김진화 (2008).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2), 173-197.
- 윤철경, 박병식, 김진호, 강현주 (201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연구보고 12-R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갑철 (1999). 청소년의 여가 활동 참가 및 참가 유형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0(4), 165-174.
- 이강우 (2002).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자아증진감의 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1(5), 129-137.
- 이강우 (2003).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폭력행동의 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3), 153-160.
- 이강우, 채환국 (2002).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스트레스의 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1(5), 139-147.
- 이건미 (2010). 초등학생의 방과후 무용활동이 정서 및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무용학회 논문집**, 62, 119-133.
- 이경일, 김영숙 (2003). 아동의 방과 후 학습활동 참여가 자아 효능감 및 자아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4(5), 611-622.
- 이광우, 전제철, 허경철, 홍원표, 김문숙 (2010).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광호 (2005). 학교 밖 일상 체험활동의 청소년 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372-396.
- 이광호 (2011).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사업의 진화 필요성과 청소년활동 사업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원1주년 기념 청소년활동 토론회: “청소년 활동, 다시 길을 묻다” -청소년활동의 과제와 대안-**, 1-19.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숙, 민용성, 조성기, 조덕주, 이낙중, 김현철 (2007).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지원 연구(V)**.

-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민희 (2013). 독일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40), 1-32.
- 이병관 (2004). 방과후 자율체육활동 참여의 목적과 효과. **한국스포츠리서치**, 154(1), 259-270.
- 이상균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환경동아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5(1), 114-123.
- 이상행, 서희진 (2000). 청소년의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유형과 셀프모니터링 및 또래지위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1), 143-156.
- 이선경 (2009). 방과 후 사회무용 활동이 초등학교생의 신체상, 수업 흥미도 및 정서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1), 1-23.
- 이성은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313-335.
- 이성학, 원주연, 권정두 (2012). 청소년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가 심리적 변인(우울증, 공격성, 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1, 86-119.
- 이수연, 김영모 (2011).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비행청소년에게 미치는 임파워먼트 효과분석. **청소년학연구**, 18(10), 207-228.
- 이영익 (2007). 중, 고등학교생의 여가활동 참가가 시험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9, 593-604.
- 이용교, 이중섭 (2010).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참여의식,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2), 203-232.
- 이은석, 이선장 (2003). 청소년의 태권도 수련활동 참가에 따른 예절의식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4(5), 911-924.
- 이재형 (2005).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6(5), 1483-1490.
- 이종경, 서동균 (2004).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와 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1491-1500.
- 이충섭 (1999). 방과후 자율체육활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8(3), 260-271.

-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2007년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 07-R44).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화, 김현숙 (2012). 중학교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및 자아정체감에 대한 학급단위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191-217.
- 이진갑 (2000). 여가스포츠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도덕성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9(3), 175-184.
- 이진갑 (2002). 청소년의 여가스포츠활동참가유형과 정도에 따른 자기표현행동과 자기조절 능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1(3), 147-158.
- 이창호, 주영아, 권해수, 안현의 (2002). **청소년 수월성 촉진 프로그램 기초 연구: 플로우 이론을 중심으로** (2002 청소년상담연구 99).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한나, 김재형, 김동기 (2009). 청소년의 진로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신뢰 및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8), 129-148.
- 이한숙 (2008). 청소년의 스포츠 특기 · 적성활동 몰입경험과 가정생활만족간의 학업스트레스 매개모형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2), 59-70.
- 이현림, 박필자 (2006).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3(1), 191-210.
- 이현림, 장정숙, 정상영 (2005).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18(1), 19-33.
- 이현림, 최남옥, 류진영 (2007). 활동중심 진로인식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인간관계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0(1), 45-54.
- 이혜진 (2004). 방과 후 학교 운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건강관련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5(2), 1265-1272.
- 임상용, 오진식 (2009).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이 신체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6(1), 479-492.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08). 2008년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개발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10).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0), 253-276.
-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Ⅲ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연구보고 08-R0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Ⅳ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연구보고 09-R12-1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김기현 (2006). **청소년 활동참가실태조사연구** (연구보고 06-R41).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승옥, 한선혁 (2004). 청소년 문화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칠곡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11(1), 193-216.
- 장진우, 윤상문 (2004). 청소년의 방과 후 스포츠활동 참여와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1481-1490.
- 전명기 (2010). 청소년활동의 재개념화(청소년육성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41-60.
- 정건희 (2011). 청소년자치 및 참여활동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원1주년 기념 청소년활동 토론회: “청소년 활동, 다시 길을 묻다” -청소년활동의 과제와 대안-**, 53-65.
- 정덕조, 권용일, 이연주 (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가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4), 145-154.
- 정우현, 박상범 (2000).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 청소년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8(1), 85-96.
- 정윤경 (2010). **청소년 체험활동의 교육적 의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10-S22), 88-100.
- 정진오, 한아름 (2008).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자기표현력과 사회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학회지**, 47(6), 279-289.
- 정철영, 김봉환, 송병국, 최동선, 이종범, 김은석, 주홍석, 김보경 (2012). 직업체험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학습동기, 창의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5(3), 1-17.
- 조남홍 (2011). 여가스포츠 사회화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3), 83-102.
- 조성심, 주식진 (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3(3), 47-64.
- 조연철, 최창석 (2001).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와 자아효능감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5, 213-221.
- 조영승 (1998). 청소년육성법론 연구를 위한 서설 -청소년육성법론의 의미와 연구방법-. **청소년학연구**, 5(3), 197-230.
- 조호운, 조성환, 김영희 (201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과 긍정적 자가지각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1(4), 72-744.
-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성취기준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은설 (2013).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4(1), 185-217.
- 진은설, 임영식 (2009). 청소년활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4), 211-234.
- 최명수, 정명섭, 김봉경 (2006). 중학생의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5(1), 47-61.
- 최미화, 최병렬, 최병순 (2005).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활동에서 수준별 선택실험모형의적용 효과. **대한화학회지**, 49(6), 591-602.
- 최용민 (2006).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형태와 참여정도에 따른 자아효능감 비교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7(4), 695-704.
- 최원호, 우규환, 박현주 (2004).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활동 경험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사례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6), 1070-1081.
- 최현주 (2013). 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영국 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40), 87-117.
-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9(1), 23-45.
- 표내숙, 정상훈, 박철용 (2009). 중학생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3), 359-374.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

- 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황용준, 김갑선 (2005). 청소년기의 스포츠동아리 활동 참여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6(6), 871-880.
- 허성철, 이은석, 이종영 (2003). 청소년의 검도 수련활동 참가에 따른 예절의식과 예절행동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6(2), 415-430.
- 허정식 (1999). 청소년의 여가 활동 참가 유형 및 관련 변인들이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1), 133-144.
- 허정철 (2005).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7(1), 19-40.
- 현정혁, 홍준희, 이현영. (2010).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및 행복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9(6), 161-171.
- 市川伸一 (2002). 學力低下論争. ちくま親書.
- 荻谷剛彦 (2001). 階層化日本と教育危機—不平等再生産から意欲格差社會へ. 有信堂.
- 日本青少年教育振興機構 (2009). 長期宿泊体験活動に對應した學校教育のカリキュラム開發と有効性に關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
- 文部省編 (1999). 平成年度我が国の文教施策—進む「教育改革」. 大藏省印刷局.
- 文部科学省 (2010). 平成22年度文部科学白書.
- 金鉉哲 (2013). 青少年政策の日本日韓. 渡辺秀樹外 (2013) 勉強と居場所—学校と家族の日韓比較. 東京: 勁草書房. pp. 21-39.
- 「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検委員会(2008). 地域に学ぶ「トライやる・ウィーク」— 10年目の評価検委(報告).
- Anderson, L. W. & Krathwohl, D. R. (Eds..) (2001)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ing: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Allyn Bacon, Boston, MA (Pearson Education Group)
- Ariès, Philippe (1962). *La Societe Francaise, 1789~1970*. 박단·신행선 역(2000). **프랑스 사회사: 1789~1970**. 서울: 동문선.
- Bloom B. S.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 The

- Cognitive Domain. New York: David McKay Co Inc.
- Caillois, R. (1958). *Les jeux et les hommes*. 이상률 역 (1994). **놀이와 인간**. 서울: 문예출판사.
- Cason, D. & Gillis, L. H. (1994). A meta-analysis of outdoor adventure programming with adolescents.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17(1), 40-47.
- Crean, H. F. (2012). Youth activity involvement, neighborhood adult support, individual decision making skills, and early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s: Testing a conceptual mode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75-188.
- Crenshaw, D. A. & Mordock, J. B. (2005). *les hommes*. 권윤정 외 역 (2012). **놀이치료핸드북**. 서울: 학지사.
- Csikszentmihalyi, M. (1999). *Beyond Boredom and Anxiety: Experience Flow in Work and Play*. 이삼출 역 (2003). **몰입의 기술**. 서울: 더불어책.
- Csikszentmihalyi, M. (2003). Finding Flow. 이희재 역(2010). **몰입의 즐거움**. 서울: 해냄.
- Durlak, J. A., Weissberg, R. P., & Pachan, M. (2010). A meta-analysis of after-school programs that seek to promote personal and social skill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3-4), 294-309.
- Gillis, L. H., & Speelman, E. (2008). Are challenge (ropes) courses an effective tool? A meta-analysis.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31(2), 111-135.
- Hans, T. A. (2000).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adventure programming on locus of control.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0(1), 33-60.
- Huizinga, J. (1938). *Homo Ludens :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이종인 역 (2010).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경기: 연암서가.
- Kline, R. B.(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 Neill, J. T. (2002). Meta-analytic research on the outcomes of outdoor education.

- In 6th Biennial Coalition for Education in the Outdoors Research Symposium*,
Bradford Woods, IN (pp. 11–13).
- NFER (2012). “INCA Comparative Tables” , in INCA International Review of Curriculum and Assessment Frameworks Internet Archive, NFER Publishing.
<http://www.nfer.ac.uk/what-we-do/information-and-reviews/inca/INCA-comparativetablesMarch2012.pdf>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Executive summary.
- OECD (2011a). "Total Population", in OECD Factbook 2011–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oecd-factbook-2010/dependent-population_factbook-2010-2-en
- OECD (2011b). "Dependent Population", in OECD Factbook 2011–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1-2012/total-population_factbook-2011-9-en
- OECD (2011c). "Youth inactivity", in OECD Factbook 2011–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1-2012/youth-inactivity_factbook-2011-67-en
- OECD (2011d). "Unemployment rates", in OECD Factbook 2011–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1-2012/unemployment-rates_factbook-2011-64-en
- OECD (2011e). "Educational expenditure", in OECD Factbook 2011–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1-2012/education-expenditure_factbook-2011-89-en
- Root-Bernstein, R. (1999). 박종성 역 (2007). *생각의 탄생*. 서울: 에코의서재.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ipale, I. (2006). *100 sosiaalista innovaatiota Suomesta*. 조정주 역 (2010). **핀란드가 말하는 핀란드 경쟁력 100**. 서울: 비아북.
- Wilson, S. J., & Lipsey, M. W. (2000). Wilderness challenge programs for delinquent youth: A meta-analysis of outcome evalu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1), 1-12.

【법령자료】

-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강원도조례 제3457호, 2011.3.11.]
-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272호, 2012.3.15.]
- 정부조직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 11690호, 2013.3.23.]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4.22.]
-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1290호, 2012.2.1.]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40호, 2013.1.28.]
-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 11835호, 2013.5.28.]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3.23.]

【중앙행정기관 예산자료】

- 경찰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고용노동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공정거래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관세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국가보훈처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국가인권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국민권익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국방부 (2012).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국세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국토해양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6권.

금융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기상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기획재정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농림수산식품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기금, 회계).

농촌진흥청 (2012). 2013년 정부예산 확정안 사업설명자료(Ⅱ-1).

문화재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법무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법제처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보건복지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산림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소방방재청 (201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여성가족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외교통상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 2013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조달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중소기업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지식경제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통계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통일부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특허청 (2012).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한국국제교류재단 (2012). 2013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해양경찰청 (2012). 2013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행정안전부 (201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Ⅱ-1).

환경부 (2012). 2013년 예산안(정부확정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3권.

부 록

표1.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문헌 분석자료

표2. 중앙부처 청소년활동정책 자원분석표

그림1. 청소년활동정책 연표

부록 표 1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문헌 분석자료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교과활동 역량 기반의 교과형 수업모형 STEAM 기반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언어·수리(+) 자율적 행동역량(+), 도구활용역량(+) 감성지능(+),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자신감(정신적자신감(+),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신체적자신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주도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주제성, 친밀성)(+) 자아성취감(능력개발(+), 목적이상실현(+), 능력발휘(+)) 자아개념(+) 주체성(+), 자기수용성(+) 자아탄력성(+) 자기표현행동(적극적표현, 윤리적표현, 이타적표현, 직설적표현 간접적표현행동, 반소속성, 반회피성(+), 소극적표현(-)) 전체 자아효능감(+)(신체적 자아효능감(+), 일반적 자아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자아성취감(+) 자기조절능력(주의성, 침착성, 집중성, 규범성, 인내성)(+) 신체적 자기효능감(인지된 신체능력(+), 신체적 자기표현자신감(+)) 신체적 자기개념(유능감(+), 외모(+), 신체활동(+), 신체전반(+), 건강(+), 자신감(+), 규칙적 운동 및 근력(+), 지구력(+), 신체적 자기가치(+), 스포츠유능성(+), 몸매(+), 체력(+), 신체적 컨디션(+), 유연성, 체지방) 체력(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윗몸앞으로 굽히기(+), 오래달리기-걸기(+))	권해수, 김민성, 강영신(2010)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2010) 김수호, 이태욱(2013)
건강·보건활동 -신체 단련 활동 -안전 응급처치 활동 등 스포츠활동 체육활동 체육특기적성활동 체육특기개발교육 생활체육활동 태권도, 검도, 농구, 단전호흡 e-스포츠	성별 학교급, 학년 참여종목 참여빈도, 시간, 기간 참여강도 참여수준 참여형태, 참여방식(단체/개인, 조직적/비조직적) 참여동기 동아리활동정도 자아존중감, 친구존중감, 학교존중감, 신체적 존중감, 자신감	자신감(정신적자신감(+),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신체적자신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주도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주제성, 친밀성)(+) 자아성취감(능력개발(+), 목적이상실현(+), 능력발휘(+)) 자아개념(+) 주체성(+), 자기수용성(+) 자아탄력성(+) 자기표현행동(적극적표현, 윤리적표현, 이타적표현, 직설적표현 간접적표현행동, 반소속성, 반회피성(+), 소극적표현(-)) 전체 자아효능감(+)(신체적 자아효능감(+), 일반적 자아효능감(+), 사회적 자아효능감(+)) 자아성취감(+) 자기조절능력(주의성, 침착성, 집중성, 규범성, 인내성)(+) 신체적 자기효능감(인지된 신체능력(+), 신체적 자기표현자신감(+)) 신체적 자기개념(유능감(+), 외모(+), 신체활동(+), 신체전반(+), 건강(+), 자신감(+), 규칙적 운동 및 근력(+), 지구력(+), 신체적 자기가치(+), 스포츠유능성(+), 몸매(+), 체력(+), 신체적 컨디션(+), 유연성, 체지방) 체력(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윗몸앞으로 굽히기(+), 오래달리기-걸기(+)) 새롭거나 숙련된 기능(+), 경쟁성(+), 규칙 준수(+), 책임감(+), 교우관계(+), 협동성(+) 사회적 능력(사회참여도(+), 인기도(+), 사교성(+), 대인적응성(+), 주도성(+)) 사회적 능력(대인능력, 지역사회참여(공동체정서, 공동체참가, 이타성)(+) 사회성(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 협동성(+), 준법성(+)) 사회적 행동(사회성(+), 주도성(+), 총동성(+), 권태민감성(+)) 사회적 관계(친밀도, 접촉빈도, 사회적지지)(+) 집단응집력(수용성(+), 집단관여(+)) 또래관계(유능감, 자신감, 지도성)(+) 셀프모니터링(+), 또래관계(+) 공동체의식(+)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개인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 학교적응능력(+))	강선영(2010) 고관우, 남진열(2011) 고종욱, 김민환, 김기운, 정일호(2006) 김귀봉, 김영수(1999) 김민섭(2004) 김범식, 박종진(2000) 김수겸(2007) 김영수(2001) 김철주, 최미란(2008) 김홍석(2008) 남승구(2002) 문용, 강봉화(2004) 박경석(2009) 박병국(2004) 박성준, 김재현(2007) 박정화(2009) 박진성, 조준호(2000) 박종호, 변재철, 류호성(2006) 박혜란(2007) 변해심, 노재현(2011) 손준구(2001) 신세윤(2004) 신정현, 전선혜(2012) 안정덕, 한남익, 조광규(2003) 양종훈, 이종하(2010) 염두승(2003) 염두승, 이영민, 윤성문(2004) 윤만수, 강진홍(2001)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도덕성(사회문제에 관심)(+) 학교생활적응행동(학업적/사회적/정서적 적응행동)(+)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만족감(+), 기대충족(+), 학교생활(+), 학교행사(+)) 친구관계(+), 친척관계(+) 행복요인(자기만족, 대인관계, 능력/잠재력, 가족관계)(+) 행복감(매력적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 행복감(+)) 기정생활만족(+) 심리적웰빙(+) 심리적 욕구만족도(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정신건강(강박증(-), 대인예민(-), 불안(+, -), 신체화(-), 정신증(-), 우울증(-), 공포불안(-), 편집증(-), 적대감(+, -)) 정서(활력(+), 피로(-), 혼란(-)) 정서행동(자기인식, 자기조절, 공간적 이해력, 동기화, 대인관계능력)(+) 공격성(-) 스트레스(일상적스트레스(-), 대인관계스트레스(-), 학교생활스트레스(-), 심리적스트레스(-)) 심리적스트레스(-), 신체적스트레스(-), 가정생활적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폭력행동(+, -) 사회질서 비행(지배성(-), 사교성(-), 활동성(+), 대물 비행(사교성(+), 활동성(+), 자율성(+), 안정성(+), 일반 비행(지배성(-), 사교성(-), 활동성(+), 대인 비행(지배성(-), 사교성(-), 활동성(+)) 일탈(가정생활일탈(-), 사회생활일탈(-), 학교생활일탈(-)) 집단간 양파현상(-)	이강우(2002) 이강우(2003) 이강우, 채환국(2002) 이병관(2004) 이상행, 서희진(2000) 이성학, 원주연, 권정두(2012) 이종경, 서동균(2004) 이진갑(2000) 이진갑(2002) 이홍섭(1999) 이한숙(2008) 이해화(2003) 이혜진(2004) 장진우, 윤상문(2004) 정우현, 박상범(2000) 정진오, 한아름(2008) 조남홍(2011) 조연철, 최창석(2001) 최명수, 정명섭, 김봉경(2006) 최용민(2006) 표내수, 정상훈, 박철용(2009) 현정혁, 홍준희, 이현영(2010) 황용준, 김갑선(2005)
과학교정보활동 -모형만들기, 로봇활동 -우주과학교활동 -정보컴프활동 등 과학 동아리 활동 특별활동 과학반(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수준별 선택실험모형		직업적 역할 모델로서의 열정 있는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직접적 체험을 경험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과학 실험을 준비하며, 비슷한 재능과 학업을 가진 또래의 과학 동아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은 학생들을 과학 관련 진로로 격려하는 좋은 요인임 과학적 태도(+), 과학교정보 활용능력(+) 탐구심(+), 탐구능력(+) 공동체 의식(+)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고관우, 남진열(2011) 문성호, 문호영(2010)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2010) 최미화, 최병렬, 최병순(2005) 최원호, 유규환, 박현주(2004)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교류활동 -국제 교류 활동 -다문화 이해 활동 -세계 문화 비교 활동		공동체 의식(+) 사회성(+), 사회적 역량(+)	고관우, 남진열(2011) 이광호(2005)
모험·개척활동 -탐사 등반, 야영활동 -해양활동, 극기훈련 야외체험활동(outdoor adventure programs) 야 외 교육 프로그램(outdoor education program) Wilderness challenge programs Challenge (ropes) course	참여방식(자발적/비자발적) 참여기간(+) 연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상대적으로 강도가 센 활동 치료적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	자아개념(또래관계, 타인관계, 정서요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신감(+), 도전정신(+), 성취감(+) 행동지향성(action-orientation), 대처행동(+) 신체조건에 대한 태도(+), 태도(+) 학업성취도(+) 진로선택준비도(+), 직업성숙도(+) 집단 역동(대인관계, 응집력, 효과성)(+) 공동체 의식(+) 사회적 역량(+) 팀웍(+), 삶의 생활만족도(+) 집단간 응대현상(-), 문제행동(-), 반사회적 행동(-), 비행(-) ※ 활동에 참여한 처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 교집단보다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행동이 덜 나타남 타인에 의한 행동평가(+), 행동관찰(+)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우울/불안(-) 학교성적(+), 학교출석률(+) 치료적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 > 발달적 또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 ※ 모든 체험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효과성은 다양하게 나타남 ※ 체험활동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관해서는 일반화하기 어려움	고관우, 남진열(2011) 김용규, 정난희, 김주호(2009) 김윤나, 박옥식(2009) 문성호, 문호영(2010) 손준구(2001) 송병국, 박정배(2006) 이광호(2005) Cason & Gillis (1994) Gillis & Speelman (2008) Neill (2008) Wilson & Lipsey (2000)
직업체험활동 -진로 탐색 활동 -직업현장 체험 활동중심 진로인식 프로그램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활동중심, 수업중심)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부모에착	자아정체감(+) 자존감 전체(사회적 자존감(+), 학교 자존감(+))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계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능력 자아(+), 교서관련 자아(+)) 자기효능감(+) 자율적 행동역량(+), 창의성 발달(+) 학습동기 유발(+) 학습동기 전체(자기효능감(+), 성취가치(+), 학업성취동기(+)) 성취동기(미래지향성(+), 자선감(+), 책임감(+), 도전의식(+), 과제지향성(+)) 내적 통제성(+)	강명숙, 이현림(2007) 강진령, 이영주(2009) 고관우, 남진열(2011) 권해수, 김민성, 강영신(2010) 김명희, 신현숙(2007) 김지연, 이영순(2011) 문성호, 문호영(2010) 송병국, 박정배(2006) 신선영, 송명자, 이현림(2009)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숲 체험 -환경 살리기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환경 등아리)		진로의식성숙(진로결정성(+), 진로관여성(+), 진로타협성(+), 진로성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계획수립(+), 목표설정(+))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수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선택준비도(+) 진로발달(+) 경제의식(+), 자기이해(+), 실천의지(+) 진로성숙도(독립성(+),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 직업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력(+)) 인관관계(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및 개방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규칙준수(+), 학교행사 참여정도(+))	양수민, 주희진, 조규판(2009) 양준국(2004) 이중화, 김현숙(2012) 이하나, 김재형, 김동기(2009) 이현림, 박필자(2006) 이현림, 장정숙, 정상영(2005) 이현림, 최남옥, 류진영(2007)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2010) 조성신, 주석진(2010) 정철영, 김봉환, 송병국, 최동선, 이종 범, 김은석, 주홍석, 김보경(2012)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숲 체험 -환경 살리기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환경 등아리)		새로운 가치 인식(+), 내면화(+), 다양한 측면에서 행동이나 사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인식(+) 환경소양함양(+), 환경 친화적 행동(+) 환경보존태도(+), 환경에 대한 책임감(+), 환경감수성(+), 자연친화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학교규칙(+), 교우관계(+))	고관우, 남진열(2011) 문성호, 문호영(2010) 변영호(2010) 이상균(2012)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2010)
자기(인성)개발활동 -토론 등 자기표현활 동(독서) -성성수련활동 (인터넷 중독예방치로 를 위한) 정보윤리 교 육 프로그램 대화저널 쓰기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 그램 문제해결, 갈등해결, 자기관리, 리더십, 의 사결정 등 사회적 기 술 프로그램 영양 기반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SAFE 프로그램 (Sequenced, A c t i v e , F o c u s e d , Explicit; 순차적, 적극적, 집중적, 명시적)	자기인식 및 표현(+), 고립된 자아와 마주함, 스스로의 힘으로 타자와 마주함, 타자와 함께 '나'됨을 구성함, 타자와 함께 공유적 의미를 만들어감 타인과의 관계형성(+), 편견을 내려놓고 이해로 향함, 인간은 관계적 존재임을 인식함, 선생님과의 보살핌관계 가 형성됨, 친구들과의 보살핌관계가 형성됨 자기인식(self-perceptions)(+) 음성적 자기표현력(+) 성호작용 역량(+), 도구 활용역량(+) 학교성적(+), 성취도평가 점수(+) 관계 만족수준(+) 사회적 기술(자기주장(+), 공감(+), 이타성(+), 적극성(+), 자기억제(+)) 공동체의식(+) 학교와의 유대감(bonding to school)(+), 학교생활만족(교우노감(+))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문제행동(-) 인터넷 이용시간의 변화(-), 인터넷 게임이 순수놀이로 변함, 인터넷 중독(-)	고관우, 남진열(2011) 권해수, 김민성, 강영신(2010) 박경득, 서보은(2011) 박주희(2010) 신은섭(2010) 정진오, 한아름(2008) Durlak, Weissberg, & Pachan (2010)
봉사활동	봉사영역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성(+), 긍정적인 자기지각(+)	고관우, 남진열(2011)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일손 돕기, 캠페인 -자선·구조 활동	봉사 경력 봉사방식 활동빈도, 기간 봉사시간 봉사만족도	성취동기(+) 전체 임파워먼트(+)(개인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자율성(+) 사회성(+) 사회적 책임감(+) 인성(사회성(+), 책임감(+)) 공동체 의식(+) 학업성취(+),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포래에 취(+), 포래관계(+) 도덕성(+) 시민의식(+) 복지의식(+) 삶의 행복감(+), 생활만족도(+), 삶의만족도(+) 진로선택준비도(+) 비행(+)	김동배, 조하래(1997) 김미성(1997) 김선숙, 안재진(2012) 김윤나, 박옥식(2009) 김지혜(2012) 도종수(2011) 문성호, 문호영(2010) 서대석(2013) 송병국, 박정배(2006) 이성은(2009) 이수연, 김영모(2011) 임영신, 문성호, 정경은(2010) 조호윤, 조성환, 김영희(2012) 허정철(2005)
사회참여활동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나 정치인에게 청소년 들의 생각을 건의하는 활동	참여수준(단체/ 개인의사결정참 여수준) 참여형태(온라인 /오프라인) 참여과정(집단/ 개인속의과정참 여정도) 참여 양(참여경 험기간, 참여한 단체수)	나의 발전(+)(자신감, 리더십, 책임감, 성숙된 사고, 긍정적 행동, 미래의 비전, 청소년에 대한 관심, 대인관계 개선, 지역사회에 대한 개선) 자기만족(+)(성취, 자부심) 삶의 만족도(+) 즐거움(+)(자유로움, 재미, 스트레스해소, 새로운 경험) 진사회성(+) 사회적 신뢰감(+) 시민성(+) 사회참여의식(+) 공동체 의식(+)(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욕구의 통합과 충족, 정서적 연계)	박가나(2009) 박재숙(2011) 진은설, 임영식(2009) 이윤교, 이준섭(2010)
문화 활동 -영화, 비보이 등 먼 스활동 -보컬, 락음악 등 음 악활동 -코스프레, 플래시몹 등 -팬덤 -발레 등 무용, 미술 활동	참여기간 참여빈도 참여강도 참여유형 참여정도 평균여가시간, 여 가생활만족도, 문 화활동지출비용, 문화활동참여횟 수, 문화활동참여	전체 자아개념(+)(신체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학업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일반적/사회적/학교 자아존중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성취목표 지향(+), 신체적 유능감(+) 학습활동(+)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신체성(운동발현 및 지속영역(+), 운동조절영역(+)) 도덕성(책임성(+), 건전성(+, -), 정직성(+, -), 신뢰성(+, -)) 사회적지지(+, -, 접촉빈도(+), 접촉범위(+, -, 친밀도(-))	고관우, 남진열(2011) 구본행, 김을교(2002) 김혜진, 황명자(2009) 문성호, 문호영(2010) 박성준, 김재현(2007) 손연희, 서영환(2012) 손준규(2001) 염상석(2012)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풍물, 민속놀이 -고전음악감상 등 -악기연주 - 학교생활무용프로그램 - 재즈댄스활동 - 무용활동 - 레크레이션 활동	- 민중도.문화시설 - 이용만족도	정서(생활태도발달)(+), 사회성(지배성(+), 사교성(+), 자율성(+)) 스트레스(-) 집단간 융타현상(-) 공동체의식(+) 문화예술의 이해(+), 문화예술기능(+), 창의성(+), 주체성(+)	이건미(2010) 이선경(2009) 임성웅, 오진식(2009)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2010) 장승옥, 한선혁(2004) 정경은(2011)
통합활동 -수련활동, 여가활동, - 창의적체험활동, 청소년활동, 청소년체험활동 등) - 방과후 활동(신체적, 예술적, 인지적 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지율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청소년 활동(문화예술관련활동, 스포츠 활동, 모험개척활동, 참여활동, 봉사활동 등) - 체험활동(진로활동, 수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 동아리활동(클럽활동, 특기적성활동, 단체활동 포함) - 여가활동(신체적, 사교적, 문화적, 자연적, 정신적) - 여가활동(신체적활동, 휴식적 활동, 예술적활동)	활동유형 참여빈도	자아정체감(인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 대인관계)(+) 자아정체감(주체성, 자기수용, 미래확신, 목표지향, 주도성, 친밀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아개념(일반적자아, 학문적자아, 중요타인자아, 정서적자아)(+) 사회자아개념(+), 학업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자아성취감(+) 자아신체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 잠재능력의 개발(+), 적극성/추진력 파악(+), 문제해결력을 발휘하는 안목(+) 긴장(-), 활력감(+), 자긍심(+), 신체적 자기기치(+), 스포츠효능감(+), 신체적 컨디션(+), 근력(+) 건강증진행위(체력관리, 스트레스관리, 사회적지지, 자아실현, 영양관리, 운동) 자신감(+) 몰입경험(인지, 적극, 행위)(+) 진로성숙도(+), 긍정적자아관(+), 내직직업가치관(+) 덕성(+)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사회성(+) 공동체의식(+) 삶의질(경제적 삶의질(+), 환경적 삶의질(+), 사회적 삶의질(+)) 생리적여가만족도(+), 교육적여가만족도(+), 신체적여가만족도(+), 심리적여가만족도(+), 휴식적여가만족도(+)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행복감(+) 신체화(-) 우울(-), 불안(-), 가해경험(-), 비행(-), 공격성(-), 문제행동(-) 가정생활비행(-), 학교생활비행(-), 사회생활비행수준(-) 시험스트레스(-) 예절의식(몸가짐, 인사, 언어, 방문, 전화/통신)(+), 예절행동(몸가짐, 인사, 언어, 방문, 전화/통신)(+)	강경빈, 문동규(2006) 강봉화(2004) 강성구(2007) 구창모(2004) 권일남, 김영철(2006) 김경란(2004) 김도영, 임영식(2013) 김도영(2013a) 김도영(2013b) 김미연, 김정혜(2013) 김성택, 김주훈(2003)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2011) 나명훈, 최종연(2006) 박성준, 김재현(2007) 박재숙(2010) 배미희, 김홍순, 김청송(2012) 배성민(2003) 설민희(2009) 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2012) 이갑철(1999) 이경림, 김영숙(2003) 이영익(2007) 이은석, 이선정(2003) 이재형(2005) 정낙조, 권용일, 이연주(2008) 진은설(2013)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2012)

활동영역	외재변수	효과	연구
동.오락작활동,사회적 활동) 여가활동3(스포츠험미 교양,관람감상,사교부 문,관광행락,놀이오락) 여가활동4(문화예술험 동,스포츠험동,취미 오락활동,기타활동) 여가활동5(스포츠험건 강활동,취미및교양활 동,오락및사교활동, 감상및관람활동) 여가활동6(활동경,소 영,취미영,사회영,문화 영)			허성철, 이은석, 이종영(2003) 허정식(1999) 허정철(2005)

부록 표 2 중앙부처 청소년활동정책 지원분석표

영역	사업내용		시설향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여성가족부 (102,569)	청소년참여활동 (1,839)**	· 청소년참여기구(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766)** · 청소년특별회의 운영(180)** ·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45)** · 청소년의 달 행사(청소년의 달 행사,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등)(736)** · 푸른성장대상(112)**	· 국립시설 건립 지원(영덕청소년환경센터, 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5,250)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지역개발계정): 2007년도부터 지역개발사업 및 재주특별자치도계정 분리(69개소)(49,168)* · 청소년시설 확충(재주특별자치도계정): 2007년도부터 지역개발사업 및 재주특별자치도계정 분리(3개소)(1,382)* · 청소년시설 안전지원(청소년문화의집 215개소)(331)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청소년문화의집 215개소)(172)**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고흥청소년우주센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포함) 운영 지원(23,121)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3,085)**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100)**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12 75개 단체, 320만 회원](579)**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44개소] (2,982)**	· 청소년지도사 양성/청소년 보수교육 (450)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3,377)**	*관여특별회계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활동 지원 (9,820)**	· 청소년국제교류활동(4,019)** · 청소년프로젝트공모사업(157개 프로그램 지원)(1,771)** ·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126개](2,400)** ·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2,000개](800)**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340)** ·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업(490)**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913)**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364개소) (913)**			
	창의적 인재 육성 (7,500)	· 신학연교육 기부 활성화(5,200) · 창의·인성교육넷(창의체험자원지도, CRM) 활성화(800) · 창의성교육의 확산(1,500) · 초·중등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1,040) ·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협력강화(100) · 지속가능발전교육 진흥: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학생 모의유네스코총회, 유네스코 청년포럼(200) · 한중일 CAMPUS Asia 사업(학생교류 및 초청학생 체제비)[2,492] · 세계학생교육교류 지원(482)			
교육부 (373,544)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비(ODA)(2,692)	· 수탁·과학교육활동지원(1,000) · 융합형 인재육성 강화사업: 학생체험 탐구활동, 영재교육-대학연계 프로그램 지원, STEAM 대학생 교육기부단 활동(1,300)	· 과학관 건립(서울강북관, 부산)(35,200) · 국립과학관 운영(대구, 광주)(8,156) · BTL 전문과학관지원(4개소)(3,528) ·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1,400)* · 과학관 협력망 구축 운영사업(300)* ·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10,325)*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 청의적 청소년 과학교육(252)*	*과학기술진흥기금 **특별교부금
	국제교육교류협력활 성화(ODA)(482)				

단위: 백만원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문화체육관광부 (217,960)	융합형 과학기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2,100)	· 학문분야 주제별, 첨단제품 활용형, 과학·예술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2,100)			
	과학문화 확산 사업 (10,878)*	·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5,830)* · 과학기술 앤배서더 활동 지원(650)* · 청소년 과학탐구 활동 지원(2,700)* · 과학축전 운영·지원(1,698)*			
	창의인성교육강화 (12,600)**	· 창의교수학습과, 방과후학교지원과			
	학생자치활동활성화 (5,600)**	· 학생복지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법과후학교활성화 (3,900)**	· 방과후학교지원과			
	영머플 온종일 돌봄교실(39,124)**	· 방과후학교지원과			
	초중등진로교육지원 (21,900)**	· 진로교육정책과			
	특성화고 현직중심 교육지원 및 기반 강화 (25,272)**	· 직업교육정책과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83,537)**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 (3,050)**	· 평생학습정책과			
	초·중등평생교육기관 활성화(3,694)**	· 평생학습정책과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3,650)**	· 창의교수학습과			
	창의경영학교지원 (70,000)**	· 창의교수학습과, 학교정책과, 융합교육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생건강지원과, 영어교육팀			
	과학교육 활성화 (7,780)**	· 융합교육팀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 평가 시스템 구축 (4,480)**	· 창의교수학습과			
	국제교류 활성화 (2,804)**	· 교육개발협력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국제영화제 (200)*	· 제13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200)*	·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초중고 100개소, 유소]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32,047)*****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공익성 활동 강화 (1,550)**	· NIE시범학교 구둑로 지원(1,550)**	년축구센터 1개소(3,800)***** ·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30개소) (9,300)***** · 국립극단 운영: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운영사업 (200)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1,000) · 공연전시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문화행사, 야외공연 상설 프로그램 등(117) · 국립박물관(중앙, 경주, 광주, 전주, 부여, 대구, 청주, 김해, 제주, 춘천, 진주, 공주, 나주 등 13개) 프로그램 운영(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박물관 운영)(5,868)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지원: 공연사업, 문화상품사업(1,955) · 국어교육진흥원 및 여건조성: 청소년언어문화관련 행사(50)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4,244) · 덕수궁 미술관 운영: 어린이 및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운영(18) · 어린이박물관 운영(1,850)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2,400)	· 토요포스트강사 배치 (22,191)*****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예술강사 지원(39,421)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인문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 연수(5,425)***	· NIE프로그램 운영지원(청소년연수) 및 청소년 NIE 광고교실 운영(3,190)*** · 임기문화진흥사업(685)** · 청소년구둑로지원(1,550)***			
	예술 인력 육성 (54)***	· 차세대예술인력육성(YAF): 청소년문화 온라인 문예웹진 발간 및 운영(54)***			
	문화재 해외진시 및 박물관 고객서비스 강 화(250)*****	· 박물관고객 서비스 강화: 대학생 멘토 운영 (250)***** · 여성체육활동 지원: 여자들이축구클럽 양성 등 (500)***** · 유소년 축구교실 및 리그 운영(1,500)***** · 진통스포츠포드 보급: 유소년 진통놀이 한마당, 초등학교씨름교실, 어린이씨름왕선발대회 (628)***** · 바둑 보급: 초등학교 바둑교실 지원사업 (200)***** ·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1,100)			
	생활체육프로그램지 원(2,828)*****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활용(200) · 영상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청소년 및 영상미디어교실 운영(100) ·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초중학교 예방교육 지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800) · 저작권 교육 강화(3,485) · 저작권 홍보 강화(1,000) · 청소년 · 대학생 대상 저작권 공모전: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대학원생 저작권 논문 공모전 (140) · 출판산업 활성화 지원: 어린이도서 전시, 문화행사 를 위한 어린이 책 한마당 사업비(160) · 박물관 운영 활성화: 대학생 박물관 · 미술관 문화 시민봉사단 운영지원(29)			
	출판산업 육성 및 해 외진출 지원(160)	· 문화다양성 보충과 증진기반 조성: 문화예술 기반 문다양성 교육(320)			
	박물관 진흥지원 (29)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320)⁵)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550)	· 청소년 인성교육(박악회): 전국 순회강좌, 옹따예 방 토요 인성교실 등(150) ·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400)			
	토요문화학교 운영(20,500)	·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20,000) · 순수예술의 가치확산: 예술학교 특화사업⑥(50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50,571)	·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2,500)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문화예술 활성화(48,071)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2,103)	· 독서환경조성, 독서생활화, 독서운동 전개(1,496) ·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407) · 독서문화학교 운영(200)			
	미술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719)	· 어린이미술분야 전문화(438) · 문화나눔 교육프로그램(281)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 연구(5)	· 청소년 국악기 제작 체험(5)			
	국악진흥(347)	·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347)			
	민속박물관 사회문화교육 활성화(83)	· 전통문화체험 활성화(83)			
	국제체육 교류협력(220)	· 국제산악활동지원: 한국청소년외지탐사대(220)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60)	· 대학생 기자단 운영(60)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100)*****	· 문화산업체 수요인력 교육: 지역 고교 및 대학관련 학과생 교육(100)*****			
	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600)*****	· 어린이문화원: 전시 콘텐츠 제작(600)*****			
문화재청 (1,630)	해양유물전시교육프로그램운영(481)	·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 운영, 사회교육 및 문화행사(바다문화학교운영, 어린이날기념행사, 심미들 다문화가족초청 프로그램, 바다역사체험교실, 자연봉사프로그램운영 등)(481)			
	국립고궁박물관 운영(499)	· 왕실문화교육 운영 및 보급(499)			
	문화유산교육 활성화(650)	·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 방문교육지원, 체험활동교육(650)			

영역	·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고용노동부 (511,91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 턴제(87,385)*7)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기업지원금(87,385)*			
	중소기업 청년취업인 턴제(161,262)	· 취업인턴(인턴지원금, 취업지원)(154,762) · 창작인턴(기업지원금, 창작지원금, 위탁사업비 등)(6,500)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 지도(3,514)*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콘텐츠 강화(711) · 한국직업사전, 진로직업박람회 등(909) ·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보급(763) · 진로상담/탐색자료 개발 및 보급(241) · 취업지원영상매체 제작 및 보급(640) · 사이버 진로연수 자료(250)			
	청년취업 진로지원사 임(7,902)*	· 대학 취업지원관 채용지원[143개교](5,148)* ·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운영[39개교](2,484)*			
	일-현장-자격 연계 형 고졸인력 양성 (2,100)*	· 교육과정개편(600)* · 현장실습인프라 구축(1,500)*			
	청년직장채움프로그 램(8,730)8)	· 청년직장채움프로그램 연수 운영(8,730)			
	청년직장채움프로그 램(제주)(456)**	· 연수지원, 취업캠프 운영 등(456)**	·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11,200)		*고용보험기금 **광역지역발진특별회계
	글로벌 취업지원 (13,821)9)	· 맞춤형 해외취업훈련(4,500) · 글로벌 청년취업(4,500) · 취업애로청년층 해외취업지원(900) · 해외취업알선 및 구인처 개척(2,921) · 리크루트사 취업지원 위탁(1,00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57,334)	· 취업성공패키지(청장년층) 청장년 yes 프로젝트 (57,334)			
	한국잡월드운영 (14,883)	· 직업세계관, 진로세계관, 어린이 및 청소년체험관, 공연프로그램 운영, 직업지도세미나 운영, 자원봉 사자 및 서포터즈 운영, 홍보, 전시체험관 운영 및 유지 등(14,883)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39,300)	· 청년취업아카데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39,300)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지원(100,016)	· 내일배움카드제(100,016)			
	취업사관학교운영지 원(2,057)	· 위기청소년 대상 취업사관학교 운영(2,057)			

영역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행정안전부 (11,667.8)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76)**	· 청년내일희망찾기(276)**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1,676)**	· 내일배움카드제(1,676)**			
	국민안전의식 선진화(200)	· 국민안전교육강화사업: 찾아가는 안전교실, 안전 문화 홍보 · 캠페인 사업(200)			
	도로교통사고예방 여 건조성(74)	·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등 실시(54) ·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퀴즈대회,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 체험 박람회(20)			
	주민생활지원통합정 보시스템 운영(정보 화)(164)	· 나눔포털시스템 운영지원: 청소년 자원봉사시스 템(Dovol)(164)			
	밖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1,150)	· 성숙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새 윤리 도덕함양 시민 교육, 바른생활 학생 봉사단 조직 운영(도덕지킴이 활동) 나라사랑을 위한 이 총무공 정신 계승(나라사 랑 교육, 유적지 순례)(580) · 가정사랑 실천 확산: EBS와 연계한 청소년 바른생 활 교육(70) · 그린코리아 녹색생활 실천(500)		· 자원봉사활동화 지원(경상): 자원봉 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센터 코드 데이터 인건비(6,690) · 자원봉사활동화지원(제주): 자원봉 사자 보험료 지원(130)**	※ '13년 자원봉사진흥 제 2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 함양(402)	· 자유민주 시민의식 함양: 전국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운영(272) · 따뜻한 자유 구현: 대학생 지식봉사활동(130)			
	민주화운동기념 관련 사업(1,39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민주화운동정신계승 현장체험, 학술연구 사업경비, 민주시민교육사업 경비(679) · 광주민주인권관광화사업지원: 전국 고등학교 학생토 론회, 5.18 청소년문화제/사적지안내 및 체험학습, 청소년, 일반국민 참여 기념사업 등(701)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제14회 청소년논술토론 한마당(13)			
	자전거인프라 구축사 업 (1,450)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착: 자전거안전 교육 추진,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및 이용 활성화 (1,450)			

영역	프로그림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환경부 (7,339)	역사기록관 운영 (14.8)	· 기록문화 프로그램 운영: 가족과 함께 하는 기록문화학교, 청소년조선왕조실록 교실 운영(14.8)			*환경개신티별회계 ※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보건증합계획」('11~' 20) 수립
	물 환경 보전 교육·홍보(80)*	·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물환경 체험교실(80)*			
	폐기물감량정책 추진 사업(120)*	· 초·중·고·대·상 찾아가는 분리배출 체험교실 운영 [60개교](120)*			
	자연보전단체 운영 지원(7.4)*	·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학술조사 및 연구, 교육홍보 사업: 전국자연공원대회(7.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39)*	·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39)*	· 국립생물자원관 학생생물 전문 전시관 운영 및 기획/특별전시(242)*		
	환경교육강화 (5,401)*	·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운영,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 등(4,447)* · 학교 및 민간단체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954)*			
국토교통부 (6,419)	교육훈련경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1,183) ¹⁰⁾	· 환경교육과정 운영(1,183)			
	글로벌청년리더양성 (2,355)	· 해외건설특성화대, 현직출원지원(2,355)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2,084)	· 해양교육 교재개발, 시범학교운영, 동아리운영, 포털사이트 운영(829) · 해양체험프로그램(455) · 해양왕 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400) · 극지 문화행사(400)			
	청소년국토교육지원 (1,980)	· 해양소년년연맹 지원 및 장비 구입(800) ·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1,680)			
농촌진흥청 (2,501)	4-H 경진대회(250)	· 4-H 중앙경진대회 개최(25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자원 활용 기술 보급 (1,750)*	· 농촌체험활동홍보: 지역네트워크, 농촌교육농장 육성, 농촌체험 명품화(1,750)*	· 농업과학관 운영(401) ※ 농업과학관 신축 개관(2002년)		
	자원 활용 기술 보급(제주)(100)*	· 농촌체험활동홍보: 지역네트워크, 농촌교육농장 육성(100)*			

영역	프로그렘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국가인권위원회 (1,446)	차별예방 및 인권문 화조성(320)	· 인권문화콘텐츠 개발보급, 인권작품 공모, 인권의 날 행사(320)	· 지역인권문화 확산: 인권체험관(부산, 광주, 대구, 서울) 운영(144) ※ -2008. 광주 인권체험관 개관 -2010. 부산 인권체험관 개관	※ 2011. 인권증진 3개년 계획 [2012~2014]	
	지역인권문화 확산 (87)	· 시민참여형 인권홍보 권역별 상담네트워크 운영, 이주민 차별인식 캠페인, 인권 물레길, 인권장인포 럼 운영(87)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 교육 운영(582)	· 인권 연수과정 운영, 사이버 인권교육(582)			
	인권교육연구와 콘텐 츠개발(313)¹¹)	· 인권교육 기반조성, 학교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교 육콘텐츠 개발(313)			
국가보훈처 (4,637)	나라사랑정신계승발 전(3,537)	· 나라사랑교육('12년 전국 25개 민간기관을 통한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규 운 영)(3,537)			
	국내외 사적지 탐방 (805)	· 청소년 및 교원탐방(805)			
	호국보훈의 달 행사 (295)	· 청소년 문화행사(295)			
	식물산업 및 식문화 교육(1,888)*	· 건강한 식생활 확산: 올바른 식생활 교육 및 체험 지원(1,888)*			
농림축산식품부 (7,554)	도농교류활성화지원 (5,666)	· 도농교류축진, 협력사업(4,076) · 농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340) · 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1,250)			*농어축구조개신평의회계 ※ 도농교류 5개년 계획 ('10~ '14) 수립 및 발표
보건복지부 (117,565)	방과 후돌봄서비스 (117,065)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89,404) · 주5일수업제 관련 토요운영 지원(4,311) · 아동복지교사 파견(23,350)			
	아동인권 증진 지원 (500)	·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옹호지원 운영(100) · 맞춤형 권리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90) · 아동권리주간 지원 및 세미나 개최(50) · 어린이날 및 주간행사(140) · 대한민국 아동총회(120)			
경찰청 (2,897)	교통 안전 교육 홍보 (2,897)	· 교통안전홍보활동 경비(2,561) · 협력단체 교통활동 지원(336)			
공정거래위원회 (80)	공정거래지원(80)	·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80)			

영역	·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국방부 (2,000)	국방행정지원(2,000)	· 역사교육관(20,000)			
국세청 (350)	조세박물관 운영(15)	· 세금채널교육프로그램 코너 운영 등(15)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335)	· 학생세금교육 교재 제작(335)			
금융위원회 (72)	저축의 날 행사 및 저 축 장려(72)	· 저축홍보 책자 발간 등(72)			
기상청 (300)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프(300)	· 캠프 운영(300)			
기획재정부 (9,887)			· 지방자치단체지원(9,887)* /인천 청소년 아영장 조성(2,971)* /대전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5,716)* /제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1,200)*		*복합기금
방송통신위원회 (1,438)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1,438)	· 선진 인터넷 문화 정착 및 역기능 예방활동 지원: 우 · 청소년 교육(1,118) ·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 및 활성화(320)			
소방재청 (10,500)			· 소방안전체험센터설립(충남, 부산)(10,500) ※한 운영 소방안전체험관(서울 2, 대구 1개소) 및 2013년 준공예정인 전북소방안전체험관 2014년 준공예정인 충남/부산 소방안전체험 관. 시도별 1개소씩 연차적 건립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 (29)	사전예방적 위해 관리(29)	· 과학프로그램 '식약청 쏘나무 체험교실' 운영(29)			
외교부 (2,403)	워킹홀리데이 이행 (589)	· 워킹홀리데이 이행(589)			*국제교류기금
	청소년 교류(1,814)*	· 청소년 교류 확대, 한-사우디 청소년 교류 신규 추진(1,814)*			
중소기업청 (58,893)	창업지원 확대(4,500)	· 청소년 비즈쿨 학교 지원금, 비즈쿨 캠프 운영 등 (4,500)			
	창업사업화 지원 (27,393)	·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25,393) ·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2,000)			

영역	· 프로그램 및 사업		시설 및 기관	전문인력	예산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신항력 기술기능인력양성(27,000) ⁽¹²⁾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150개교) (27,000)			
지식경제부 (3,409)	전기인전관리홍보(147)*	· 어린이 전기안전인형극 순회공연(147)*			*전력산업기반기금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3,262)	· 무역교육 및 무역현장 실습교육비(2,762) · 국내 인턴십비 지원(500)			
특허청 (9,889)	발명교육 활성화(8,783)*	·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운영(2,988)* · 발명영재교육 강화(2,230)* · 특성화고 발명교육 및 실습지원(1,700)* · 발명·창의력대회 운영(1,865)*	· 발명교육센터운영(1,106)*		*책임운영기관특례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 세계학생교육교류 지원사업('12예산 여결위 검토보고)

- ① 국회(여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여가부 '국가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과 사업 목적 및 지원방식 등이 유사하여 사업규모가 큰 여가부 사업으로 통합 추진 검토
- ②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일부 중복되는 분야를 조정하여 학생대상 교류사업은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학생 이외의 청소년 교류사업은 여가부에서 추진

5)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 ① 국회(여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장기적, 포괄적인 관점에서 문화부의 다문화대책 시급('09년 국감, 정병국 의원 질의)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등 주도적인 다문화사업 개발이 필요(국회 문방위 '10년 예산검토보고서)
- ②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문화부 다문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른 다문화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이 적절('08년 11월 27일, 총리실 주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평가보고서)
 - 전 부처가 협력하여 다문화인식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문화부의 문화다양성 기반 다문화정책 추진 필요('12년 4월 18일, 총리실 주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 추진 시, 인식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12년 8월 17일, 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 안건 상정)

6) 토요문화학교 운영: '12년 주5일 수업제에 대한 학부모 사회 등의 우려

- 주5일 수업제 찬성 비율 : 66.3~68.1% (교사 96.3% 찬성)
- "중산층 이하 가정 중에는 토요일에 자제적으로 양질의 체험활동을 시켜줄 여가가 없는 곳이 많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11.7)
- "주5일 수업제 도입 이전부터 교육계가 토요일에 방치될 아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12.5)

7)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계획 확정(12.19 장관결재)

- ① 국회지적
 - 현재의 청년인턴제 시스템은 "노동부→사업운영기관위탁→대학에 모집홍보" 구조로서 대학의 취업지원실이 청년인턴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중간에 사업운영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사업운영비용이 추가 소요되므로 사업시스템 개선 필요(한노위 '10년 예산검토)
 - 중소기업청청년인턴제사업은 기존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충뉴스타트프로젝트와 지원대상,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사업성격을 저하시키고,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충뉴스타트프로젝트사업 집행률 저조('09년 결산)

② 국회 입법조사처 평가

- 80~90%의 정규직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략> 세수를 확보하여 그 일부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활용한다면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 학교교육 보편을 통한 청년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 해소,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이미 검증된 청년인턴제는 청년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

8) 청년직장제·합프로그램

- '02년 “청소년 직장제합프로그램” 사업 변경(취업지원제+연수지원제)
- '06년부터 연수지원제만 시행(‘취업지원제’ 폐지)
- '08년부터 사업의 일부를 대학 및 경제단체 등에 위탁
- '11년 운영기관으로 특성화고 확대 시행
- '12년 운영기관 대학선정, 고용센터 직영

9) 글로벌 취업지원

- '08.3월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사업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
- '08.4.29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종합계획 확정
- '10.6.8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실무협의회)
- '11.1.11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해외취업활성화 정부·민간 합동회의)

10) 교육훈련경비(국립환경연구원개발원) 2009년 국정감사

- 환경 인력양성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담당 강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강사 중 공무원의 비율이 과다하고, 강사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매년 개설과목 중 상임 과목의 수강생 수가 적어 다음해 폐강 및 통합되는 경우가 많은바, 교육과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연간 계획인원을 정확히 선정할 것

11) 인권교육연구과 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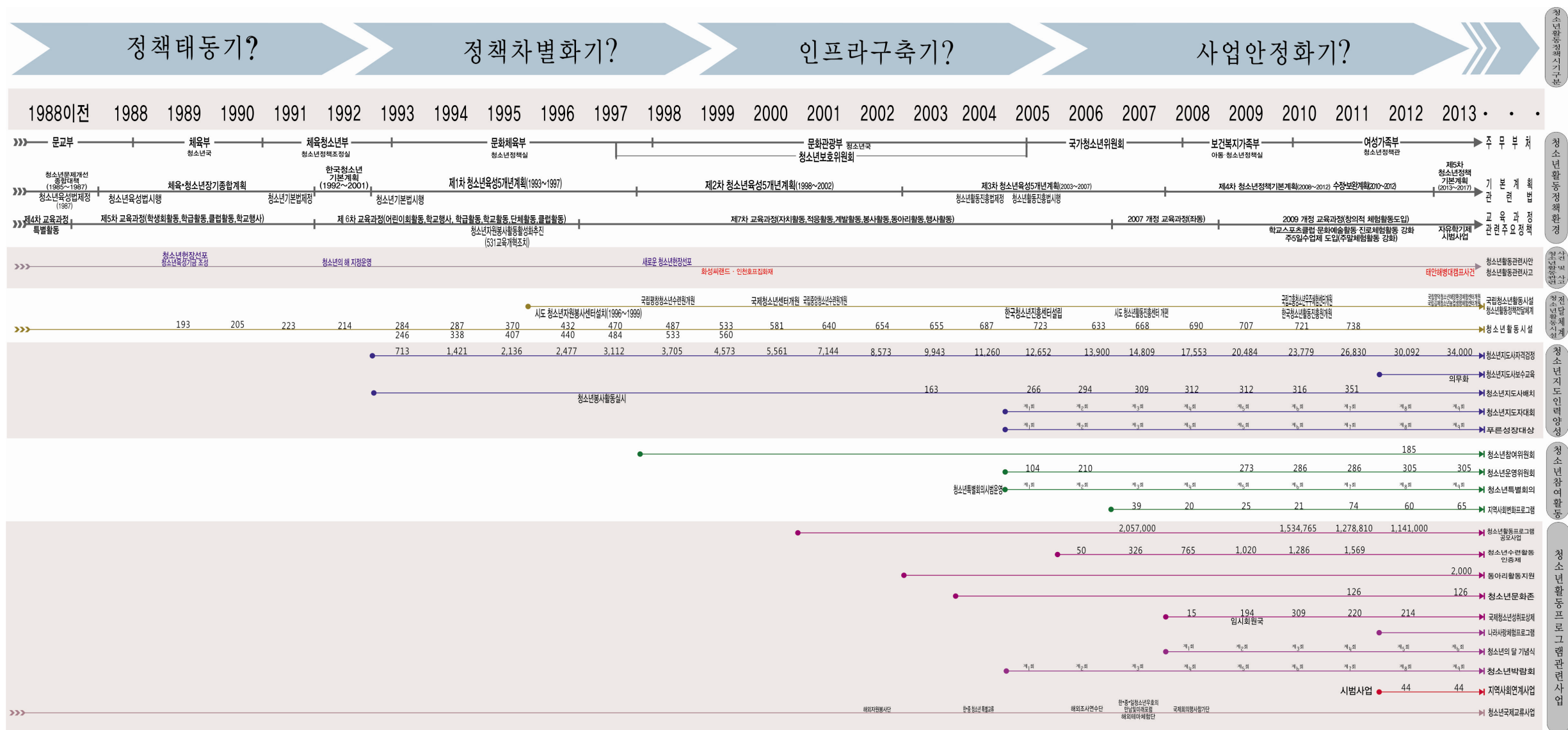
- 2003. 초·중고 인권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연차적 인권교육과제 개발 · 보급
- 2004. 동화책, 초·중고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200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 및 자료 개발
- 2009. 인권친화적 교과서 작성 · 교사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계속)

12) 산학협력 기술·기능 인력 양성

①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평가

- ('10.1, 감사원)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료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90%로 진학자를 제외한 전문계고 평균 취업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 생산현장 인력을 공급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 증대에 기여

② 국무총리실 주관 일자리 창출 특성 평가 결과: '10~' 11년 우수과제로 선정



† 자료: 1. 문화체육부(1994). 청소년백서 1994, 2. 문화관광부(2000, 2001, 2003, 2004). 청소년백서, 3.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보호백서 2002, 4. 국가청소년위원회(2005~2007). 청소년백서, 서울:국가청소년위원회, 5.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9). 아동·청소년 백서, 6. 여성가족부(2010~2012). 청소년백서, 7. 김혁진, 김형주, 김정주, 김민규, 김문주 (2012).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8. 여성가족부(2012d).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활동」

【부록 그림 1】 청소년활동정책 연표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모색

인 쇄 2013년 11월 18일

발 행 2013년 11월 1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